

# Sulwhasoo

VOL.80 JULY/AUGUS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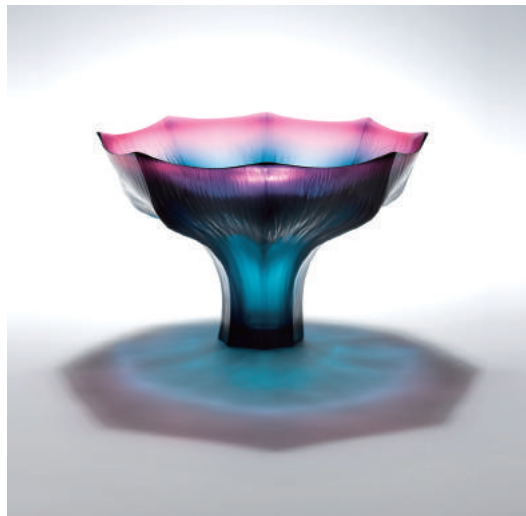
VOL.80

Sulwhasoo

Sulwhasoo

JULY/AUGUST 2017





Flower of Light / 김준용  
Blown, Coldworked, Glass / 27×27×17cm / 2014

깊은 색감의 우아한 꽃은 눈부시게 빛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빛의 각도와 조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투영된 상(Image)은 본체의 형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며,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빛과 컬러, 투명과 불투명, 약함과 강함의 이중성을 가진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김준용 작가의 작업은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한어름에도 1250도나 되는 용해로 옆에서 유리를 녹이고,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며 작품의 기본 형태를 만든다. 이후 수십 차례 깎고 다듬는 등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작품이 탄생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조각가의 정교한 손맛이 느껴진다. 그는 꽃봉오리, 씨앗의 실루엣 등을 그 자체의 질감을 살리며 유리의 선과 두께로 섬세하게 표현한다. 오묘하고 독특한 그라데이션을 가진 색감은 깊고 푸른 여름밤, 부영계 동트는 아침,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 등 자연의 풍경을 담고 있다. 여기에 빛을 받아 극대화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전하고 감각적인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탁월한 조형미와 아름다운 자연의 색감이 미처 생각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한다. 에디터 윤연숙

---

The elegant flower in deep color shine brightly to express its existence. It amaze people with a charm that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ly projected image, as it changes according to angle and brightness. The work of Joonyong Kim shows the beauty of glass craft with the dualism of light and color, transparency and opacity, weakness and strength, as it undergoes a long, tedious process. He has to melt glass next to a furnace that rises to 1,250 °C and blow air into it by using his mouth and breath to create basic shapes. Then he polishes and refines it ten times over to complete the piece. That is why his work reflects the elaborate touch of a sculptor. He uses lines and the thickness of glass to express the details of the texture and the silhouettes of flower buds and seeds. The colors contain unique, exquisite gradation that reflects natural scenery, such as the deep, blue summer night, the blurry dawn, and the sunset staining the sky. The beauty that is maximized by light is amazing, and it allows one to experience sensual enjoyment. The exceptional shapes and the beautiful, natural colors let you see a world that you have not seen before.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 Sulwhasoo

JULY/AUGUST 2017

##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7,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 Sulwhasoo

VOL.80 JULY/AUGUST 2017



##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몸과 정신을 말갱게 닦는 시간
- 12  
**피부 섬기기**  
잠든 사이 살아나는 옥의 맑은 기운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위험해서 아름다운 유리에 빠지다
- 22  
**공간미감**  
고가 위 수목원, 서울을 다시 그리다
- 28  
**건너다**  
여유로움으로 빛나는 아시아의 美

발행일 : 2017년 7월 1일(통권 제80호)  
발행인 : 심상배 편집인 : 이우동  
발행처 :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 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 : 윤연숙, 민소연 디자인 : 조윤형  
사진 :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 덕일 인쇄 :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http://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 리 다

- 36  
**설화인**  
짓기를 멈추지 않는 '황경신'이라는 꿈
- 44  
**어우러지다**  
시원함이 가득한 공간에 머물다
- 50  
**설화풍경**  
여름의 어느 날, 바닷가에서
- 54  
**설화보감**  
호로록 소리에 군침이 넘어가는구나
- 60  
**아름다운 기행**  
숨겨진 오아시스를 찾는 모험  
사하라 & 고비
- 66  
**설화수를 말하다**  
여름 햇살 아래, 수분 촉촉 산뜻하게
- 72  
**설화공간**  
루프탑 티 카페에서 맛보는 설화수의 감성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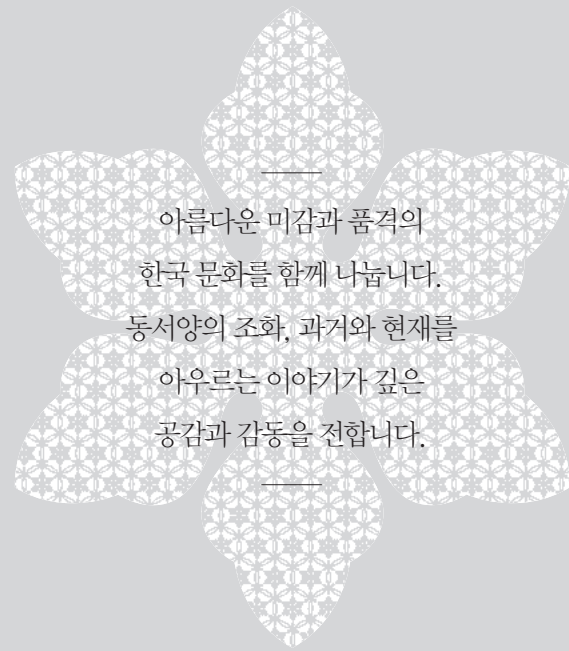


##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무엇을 담아도 바람이 살랑
- 82  
**한국의 멋**  
더운 여름날, 벗보다 반가운 바람
- 84  
**설화애장**  
'즐거움'이라는 에너지
- 86  
**읽다**  
현실 저 너머에 있을 자유를 위해
- 90  
**집 안 단장**  
바람 솔솔, 자연 소재와 여름 나기
- 92  
**몸 단장**  
우리가 사랑한 블루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 몸과 정신을 말갱게 닦는 시간 The time for cleansing the body and mind

목욕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특히 반신욕이 혈액순환은 물론 고혈압, 심장 질환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 인류의 목욕 사랑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우리 선조 역시 다양한 지혜가 깃든 목욕 문화를 이루었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목욕제계를 계율로 삼는 불교가 전파되면서 목욕은 하나의 대중화된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의 혼욕이나 전신 노출 목욕을 불온하게 여겨, 왕족이나 양반들은 목욕 전용 옷을 입고 목욕을 했다. 이른바 ‘부분 목욕’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으나 청결 목적뿐 아니라, 미용이나 건강을 위한 목욕 요법도 풍부하게 활용되었다. 궁중을 중심으로 주로 지체 높은 일부 계급에서 즐겼던 탕 목욕은 목욕물을 채운 통 속에 들어가 반신욕 정도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세안에 쓰던 팔과 녹두 가루가 목욕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곡물 가루는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해 피부를 정돈하는 일종의 스크럽제 기능을 했다. 또한 환자의 치료나 혼인을 앞둔 귀수들의 미용을 위해 각종 식물의 줄기나 잎, 열매, 뿌리 등을 우려낸 목욕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미용탕 중 그 효과가 높아 사랑받은 것은 인삼과 인삼 잎을 달여 넣은 ‘인삼탕’이었다. 이 물에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매끈하고 윤기가 흘러 귀한 신분의 여성들에게 특히 사랑받았다.

Since taking a bath was one of the precepts of Buddhism through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and the Koryo Dynasty, bathing became a public custom. With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the Joseon Dynasty believed that bathing together or publicly exposing the entire body was subversive, so members of the royalty and nobilities bathed in bathing suits. It was called ‘partial bathing,’ but the purpose was not cleansing, but skincare or health. Bathing in tubs became popular among the royalties and high-class nobilities, and it was a kind of half-body bath. They enjoyed using red bean and mung bean powder for facial cleansing, while grain powder, as a type of scrub, naturally exfoliated the skin. Also, they brewed various plant stems, leaves, fruits, and roots to treat illnesses or to provide skincare for young women prior to wedding ceremonies. Among the bathing waters of the Joseon Dynasty, the most effective and the most widely beloved was ‘Ginseng Bath’ with brewed Korean Ginseng and ginseng leaves. It was particularly popular among noble women, as it made women’s skin smooth and



엄선된 원료를 바탕으로 40일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탄생시킨 고급 한방 비누는 설화수. 텃밭에서 손수 기른 바질, 케일을 원료로 사용한 가꿈 비누는 동구밭. 인공첨가제를 넣지 않은 오트밀&단호박, 로즈마리로 만든 천연 비누는 모두 올데이스워밍. 에스닉 패턴의 스톤 소재 트레이는 하우스리벨.



껍질을 벗겨 짙은 마늘을 목면 주머니에 담아 목욕물에 넣고 초를 탄 '마늘탕'도 효험이 있다 전해진다. 이 탕은 미용 효과는 물론, 여드름을 치료하고 동상을 예방하는 의료 목적도 겸했다. 또한 계절마다 제철에 나는 식물이나 과실을 이용해 탕을 즐기기도 했는데, 늦봄에는 창포, 여름에는 복숭아, 겨울엔 유자 등이 쓰였다. 난초를 달여 목욕물에 넣는 '난탕蘭湯'은 몸에서 나는 우아하고 은은한 향기로 사계절 내내 애용되었다. 이는 세정제로 쓰인 녹두나 팥가루의 날비린내를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기능을 했다. 역대 왕들의 온천 사랑은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살펴보면 태조, 세종, 세조 등의 왕이 온양온천에 머무르며 목욕하고 유숙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한편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목욕을 즐기는 민족으로 손꼽힌다. 한여름에도 뜨거운 목욕을 즐기는 일본인에게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몸 깊숙한 곳까지 데운다'는 의미가 크다. 따스한 물에 몸을 이완시켜 하루의 피곤을 풀고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다. 일본 대중탕의 시작은 불교가 전해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엔 목욕의 즐거움이 대중에게도 널리 퍼지고 유료 목욕 시설이 등장했다. 로마제국 역시 화려한 목욕 문화를 꽃피웠다. 약 2000년 전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세워지기 시작한 대중목욕탕은 제정 말기엔 850여 개에 이르렀다. 이때의 목욕탕은 사우나, 독서실, 상점, 경기장 등을 갖춘 거대한 사교 문화의 장이었다. 영국의 바스, 스위스의 바덴, 프랑스 비시 등 로마인이 머물던 유럽 전역에 거대한 온천장이 들어섰고, 귀족들은 대욕장 안에 들어앉아 정치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5

radiant. It is said that 'garlic bath' is also effective, and it was prepared by applying a cotton pocket of peeled and crushed garlic and then adding vinegar. This bath was not only good for skincare, but it also treated acne and it prevented frostbites. Also, people bathed with seasonal plants or fruits, such as iris in the late spring, peach in the summer, and yuzu in the winter. 'Nantang,' which consisted of brewed orchid, could be enjoyed all year with its subtle, graceful scent. It effectively removed the fishy smell of mung bean or red bean powder. As you can see in the old literature, the kings of Korea loved hot spring baths. The Japanese are known for enjoying bathing the most. Entering the bathtub means 'warming the body to the core,' so they enjoy hot baths even in the middle of summer. They allow their bodies to relax in the hot water, relieve themselves from fatigue, and start anew. The history of public bath houses in Japan goes back to the 6th century,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in Japan. In the Edo period, public bath houses flourished, and the culture of bathing continued. The Roman Empire also had a glamorous culture of bathing. Founder Augustus started building public bath houses about 2000 years ago, and there were nearly 850 bath houses by the time of the late Roman Empire. The bath houses were not just for cleansing, but they were vast social spaces with saunas, libraries, shops, and even stadiums. Large hot spring baths were built wherever the Romans stayed, including the Bath in England, Baden in Switzerland, Baden-Baden in Germany, and Vichy in France. The novelties discussed politics, culture, and economy in these bath houses.



산양 털로 만들어 부드럽고 자극이 없는 페이스 브러시는 이리스한트베르크 by 스미일리지



## 잠든 사이 살아나는 옥의 맑은 기운 The clear energy of jade brought out overnight

아시아의 보배로운 보석인 옥과 설화수의 독자적인 기술이 만나 맑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한다.  
설안팍이 전하는 밤사이 청아한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는 길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예로부터 옥은 장신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건에 귀한 소재로 사용되어 있다. 또 깨끗한 마음을 ‘옥 심玉心’이라 표현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준수한 사람을 ‘옥수玉樹’라 하였으며, 아름다운 여성을 일컬어 ‘옥인玉人’이라고 부르는 등 다방면에서 진귀함의 상징이었다. 고전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에도 윤기가 돈다. 이와 같은데 어찌 사람을 윤택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옥은 상징적인 것 외에 실제로도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값진 보석이다. 설화수는 이처럼 고귀한 옥의 에너지를 가벼이 보지 않고, 쉬이 지나치지 않았다. 설화수의 독자적인 기술 제이드스피어™(Jadesphere™)를 통해 피부를 정화하는 탁월한 원료를 탄생시킨 것. 제이드스피어™ 기술은 다공성 캡슐 속에 옥 파우더를 담아 피부와 닿는 면적을 넓혀주어, 옥이 가진 효능을 피부에 전달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옥 성분은 낮 동안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다스려 맑고 깨끗한, 그야말로 옥 같은 피부로 가꾸어준다.

Since the olden times, jade has been a precious material for accessories and many other things. It was a symbol of preciousness that was often used to describe having a clear mind, and someone who was talented, or a woman who was beautiful. As you can read in a classical book, ‘Even the grass and the trees glow with radiance when there is jade in the mountain; then why would it not bring radiance to people?’ Jade is not just a symbol, but it actually creates a healthy life. Sulwhasoo did not overlook the precious energy of jade. With Sulwhasoo’s original Jadesphere™ technology, it has been reborn as an effective ingredient in purifying skin. The Jadesphere™ technology enlarges the area that touches the skin through the jade powder in multiporous capsules, and delivers the efficacies of jade to the skin. The reborn jade refines the skin, stressed by various external aggressors during the day, leaving the skin as clean and clear as jade itself.







비취색의 옥으로 만들어진  
합은 모두 기원공방.

**설안팩**

깊고 맑은 옥의 기운으로 밤사이  
피부를 정화시켜주는 수면팩 80ml.

피부 관리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일컫는다. 옥의 맑은 기운과 에너지가 오롯이 담긴 설안팩은 바로 잠들면 그만인 간편함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수면팩으로, 밤사이 피부를 맑게 정화시킨다. 항산화와 노폐물 정화 효과로 다음 날 맑고 깨끗한 피부를 전해준다. 또 건조와 격한 온도차로 인해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촉촉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부드러운 텍스처는 피부 표면에서 숨 쉬는 보호막을 만들어 피부를 끈적임 없이 편안하게 감싸며, 백단나무향에 허브향이 더해진 향은 깊은 숲속을 거니는 듯 마음 또한 정화시킨다. 맑고 윤택한 피부를 선사하는 설안팩. 언제나 푹 자고 난 듯한 고운 안색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 S

When it comes to skincare, the golden time is from 10 PM to 2 AM. Infused with clear energy of jade, the Radiance Energy Mask, is a sleeping mask that offers both convenience and functionality since you can simply apply it, before go to sleep. It can clearly purify the skin overnight. With its antioxidant purifying efficacy, it removes impurities for a purified, clearer skin the next day. It also fortifies the skin barrier that is broken by dryness and severe temperature changes to achieve moisturized and radiant skin. The smooth texture also creates a breathing barrier on the surface of the skin to comfortably wrap the skin without the sticky feeling, while the herbal scent of sandalwood scent also purifies your mind as if you were in a deep forest. Try the Radiance Energy Mask for clear, radiant skin, and wake up to a clear, vibrant complexion.

설안팩  
사용법  
How to use  
Radiance Energy Mask

**설안(雪顔) 마사지란?**

순환-정화-활성 3단계로 이루어져 피부 정화의 힘을 강화시키는 설화수의 스페셜 뷰티 리추얼.  
**What is Radiance Energy Massage?** Sulwhasoo's special beauty ritual strengthens the power of purification in three steps: circulation-purification-activation.

**1 순환 촉진**

내장된 스패츨러의 지압 부위를 이용해 정수리, 귀 밑, 쇄골, 얼굴 주요 부위를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어 피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Circulation** Use the round end part of the included spatula to circle around the top of the head, under the ears, clavicles, and the major parts of the face to smooth the circulation of the skin.



**2 피부 정화**

스패츨러 마사저 부위를 이용해 이마 중앙, 눈 앞머리, 콧방울 옆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턱 중앙에서 귀 밑, 쇄골 안쪽까지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Purification** Use the massager part of the spatula to gently sweep through the center of the forehead, inner ends of the eyes, and the sides of the nose. Then gently move from the center of the chin to under the ears and inside the clavicles.

**3 활성 강화**

내용물을 적당량 취한 후 얼굴 전체에 펴 바르며 손바닥의 온기로 내용물을 충분히 밀착시켜줍니다.  
**Activation** Release an appropriate amount and spread over the face. Use the warmth of your palm to apply the formula onto your skin.





## 위험해서 아름다운 유리에 빠지다

### Kim Joonyong

유리공예가 김준용

도예처럼 대중화되지 않은 유리공예. 이 특별한 세계에서도 더 각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가 김준용. 그는 무거운 쇠파이프를 움켜쥐고 뜨거운 가마와 마주 앉아, 자신이 발견했거나 상상했던 색감과 꼴을 완성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표지에 실린 작품을 보는 순간, 굳이 제목을 확인하지 않아도 한 떨기 꽃이 연상됐습니다.

제 의도가 직관적이었다는 얘기로 들려서 즐겁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워 시리즈의 하나로 '심연으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작품을 위에서 보면 마치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 작품이 대체로 두꺼운 편인데, 이 작품의 경우 다른 작업물과 달리 지극히 얇은 부분이 있어요. 소장자의 입장에서는 보관의 어려움이 뒤따를 겁니다. 유리 내부의 색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다보니, 극한까지 치달은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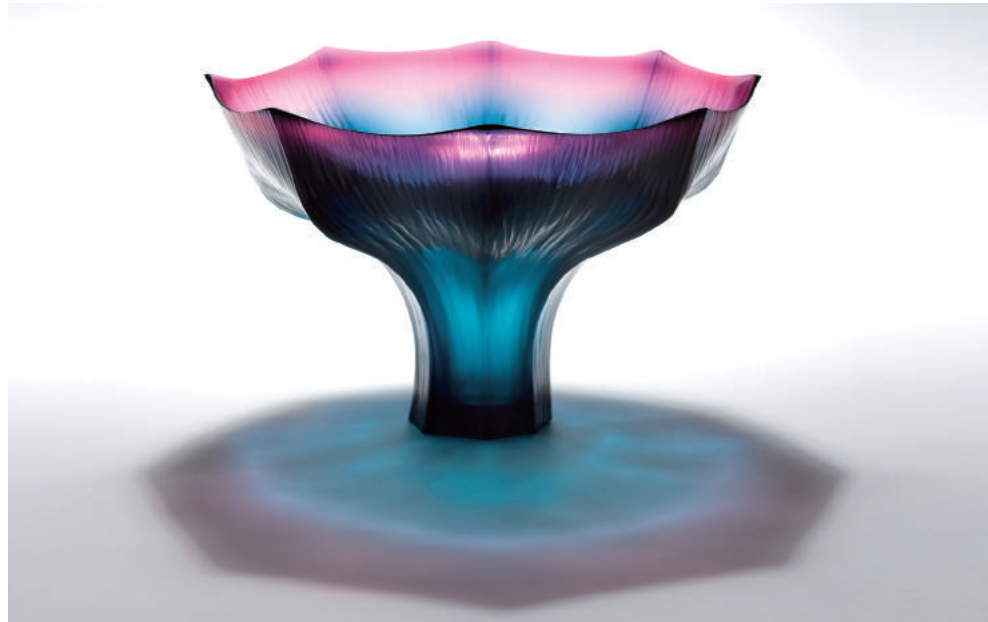
유리의 두께를 어떻게 차츰 얇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리공예는 쇠파이프로 숨을 불어넣는 블로잉 기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여기에 유리를 깎아내는 연마 기법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께의 그라데이션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두께의 차이로 인해서 빛이 다양하게 투과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유리의 가장

When I first saw the artwork on the cover, it instantly reminded me of a blossoming flower. I'm happy to hear that it seemed like my intention was intuitive. As you said, I titled it, 'Into the abyss,' as part of the Flower series, and it felt like it is pulling you in when you look at it from the top. My work is generally thick, but this piece has an extremely thin part. It would have been hard to acquire if you were the collector. I applied the gradation method to show the internal color of glass clearly, so it ended achieving the extreme.

I wonder how you would make the thickness of the glass gradually thinner. Basically, glass craft makes use of the blowing method to breathe in air through a steel pipe. Then I add a polishing method to smoothen the surface. Therefore, I can achieve this thickness in gradation, and the difference in thickness transmits various rays of ligh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perties of glass





중요한 물성 가운데 하나가 빛이 투과된다는 투명성이죠. 그런 물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수묵화의 농담 같은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도예보다 대중성이 낮은 유리공예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대학진학을 앞두고 우연한 기회에 크리스털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죠. '혹시 내가 저 아름다움을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더군요. 무거운 석파이프 끝에 10kg의 유리를 매달면, 마치 어린아이가 파이프 끝에서 출렁출렁 그네를 탄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유리가 액체가 돼 출렁거리니까요. 큰 작업을 할 때는 7명 정도가 달려들어 함께 협업을 하곤 하죠. 힘 좋은 동료작가가 필요합니다. 해서 더 나이가 들면 이런 작업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크고 작은 깨달음의 연속일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s transparency to let light pass through. I chose this method to take advantage of it as much as possible. Easily put, it is like the light and shade of ink paintings.

**Is there a reason why you chose glass craft, which is not as popular as pottery?**

I was mesmerized by the beauty of crystal before I went to college. I was hoping to make something beautiful out of it by myself rather than just appreciating it. But it was not easy to express such beauty. When you hang 10 kg of glass at the end of a heavy steel pipe, it feels like a child is swinging there. The glass sways in the form of a liquid substance. My pieces are about 30 to 40 kg in weight, so I need about 7 people to work with me. I sought the help of fellow artists who are strong enough to handle the weight of my work. Thus, I think I won't be able to do it when I get older.

**Life is a series of lessons, and I wonder how you have reached the level of your current work.** I majored in Porcelain Art, so I



도자를 전공한 탓에 대학원 졸업 후에도 한 10년 정도는 유리란 재료로 도자의 느낌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초창기의 그런 모습이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2006년까지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뭔지 모를 결핍이 느껴졌고, 이후 4년 간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휴식기 동안 여러 작가를 만났고, 블로잉 대신 다른 다양한 작업과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마라는 기법으로 저만의 색깔을 찾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업할 수 없는 공백기였지만 그 기간의 소중한 체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셈입니다.

**새로운 기법의 접목뿐만 아니라 작품을 대하는 철학에도 변화가 있었는지요?**

물론이죠. 휴식기 동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동안 제가 이론적으로 알게 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좀 더 냉혹하게 스스로를 평가하자면, 보여주기 위한 작업만 했다는 반성이 되더군요. 그렇게 영혼이 담기지 않았음을 깨달은 뒤, 거의 10개월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가마 앞에서 살았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 전시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마치는 게 아니라 작품이 완성돼야 비로소 작업을 끝내게 되더군요. 전에는 제 생각을 유리라는 대상에

found myself trying to create the feel of porcelain by using glass as material for nearly 10 years since graduate school. It was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my identity. I went on doing that until 2006, and then I felt something was missing. I even stopped working all together for 4 years after that. I met many artists during that time, and tried out various processes and methods besides blowing. Then I discovered my own color through polishing. Although it was not at work, the valuable experience made me who I am today.

**You must have not only applied a new method, but you must have also changed your philosophy.**

Of course! Looking back, I realized that I was only trying to express what I had learned theoretically. To evaluate myself more critically, I thought I was just working to show off. When I realized that there was no soul in my work, I spent more than 10 hours in front of the kiln every day for nearly 10 months. That was the happiest time of my life. Since then, I learned to finish working when a piece is complete, not when I have to meet



투영했다면, 지금은 유리 본래의 물성을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작품의 주제를 생산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겠죠?**

이제는 꽃과 씨앗 같은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 가족 여행 등을 통해 얻은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돋이를 봤을 때의 색깔이나 석양의 슬프고 아린 찬란함 같은 것을 작품에 담고자 합니다. 요즘엔 렌즈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죠. 유리는 투명성 때문에 주변의 공간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목렌즈처럼 유리를 깎아,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가지 상이 맺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렌즈에 대한 공부를 더하고자 합니다.

**작가가 아닌 교수로서의 고민도 있을텐데요?**

강의를 시작한 게 2000년부터고 청주대학교에는 2011년부터 재직하고 있으니, 꽤 오래되었네요. 솔직히 초기엔 모든 학생을 작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50명 중 많아야 2~3명이 전업 작가가 됩니다. 요즘은 장인을 만들겠다거나 작가로 성공시키겠다는 과욕을 부리기보다, 구직을 하게 될 대다수 학생들이 '유리'를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게 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창의적 틀을 갖게 되면, 잘 적응할 테니까요. 제자들이 주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유리를 다뤘다는 게 장점이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하고 싶은 작업이 많고, 발언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워낙 무겁고 큰 작업이라 아마 10년 뒤엔 체력적으로 지금 같은 작품은 못 만들 것 같고, 그때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용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S

a deadline for an exhibition. I used to project my thoughts through glass, but I am now discovering the original properties of glass.

**Then you must have changed the way you come up with ideas or topics?** Yes. Now I get my ideas from flowers and seeds in nature, and I express the emotions I felt while traveling with my family. I wish to capture the colors I discovered at dawn or the sad and heart-breaking splendor of the sunset. I am also concentrating on lens work. I was influenced by the work of Anish Kapoor. Glass absorbs the surrounding space because of its transparency. So I carve glass as a concave lens to create various images for each piece of work. I intend to learn more about lenses.

**You must have concerns as a professor, not as an artist.** I started teaching in 2000 and I have been with Cheongju University since 2011, so it has been quite a long time. At first, I wanted to make all my students artists. In reality, however, only 2-3 out of 50 students become full-time artists. So I try not to be greedy to groom them into successful masters or artists, but I focus on helping them learn about society through 'glass,' as most of them will be out there looking for jobs. By possessing creative tools, they could easily adapt to any job. Most of my students find jobs at a design or interior design firm, and they tell me that the experience of handling glass helped them a lot.

**Please tell us about your plans in the near and far future.** There still are many things I want to do and want to speak about. Like I said, this is such an intensive type of work, so I won't be able to make what I am making now in the next 10 years. But I would like to make everyday goods that are easy to use, and widely communicate with more people.



빛이 투과하면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는 유리 작품들. 김준용 작가의 파이프 끝에서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난다.





## 고가 위 수목원, 서울을 다시 그린다

### Seoullo 7017

서울로 7017

1970년에 준공되어 서울역 주변 지역을 동서로 가르며  
흐르던 고가도로는, 한때 눈부신 경제 성장의  
아이콘과도 같았다. 세월이 지나 이제 이 낡고 오래된 길은  
시민의 산책로이자 도시 속 수목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1 화분들 사이로 동선을 바꾸면서 그 길목에 있는 식재에 집중하게 된다. 동시에 화분은 벤치의 기능도 한다.  
 2 '호기심 화분'은 벽에 구멍을 뚫어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과 소리로 볼 수 있게 만든 시설물이다.  
 3 서울로 7017은 주변 주요 빌딩과도 바로 연결되어 산책 중 커피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베일에 싸여 있던 '서울로 7017'이 공개됐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40년 이상 제 역할을 다하고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2014년 도시 재생 취지의 재활용으로 존속이 결정됐다. 고가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안전성을 보완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것. 또한 서울역을 중심으로 근처 남대문시장과 명동, 남산과 서울역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는 새로운 길. 이것이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풀어내야 할 숙제였다. '서울로 7017'이란 이름은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를 2017년 17개의 보행길로 연결한다는 의미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 길이며 '서울로 향하는'이란 중의적 뜻을 가진다. 또한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국제 공모를 통해 서울로 7017의 건축, 조경, 구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Winy Maas)의 '서울수목원'이다. 서울수목원

'Seoul-ro 7017' has been unveiled. The Seoul Station Overpass was waiting to be dismantled after fulfilling its role for nearly 40 years, but a decision was made in 2014 for it to be reused as part of urban regeneration. Safety issues were corrected, while its original form was preserved so that it could be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lso, the new road could become a platform in connecting Seoul Station to the Namdaemun Market, Myeong-dong, Namsan, and the west of Seoul Station. This was the challenge of the 'Seoul-ro 7017' project. Seoul City sought a new direction for Seoul-ro 7017 in terms of architecture, landscape, and structure through an international contest. The winner was 'Seoul Arboretum' of Winy Maas, a Dutch architect. Seoul Arboretum stresses that the Seoul Station Overpass will serve as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the center of the space leading to other neighborhoods.' Seoul-ro 7017 is often compared to the New York High Line Park

은 서울역 고가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처이자 다른 동네로 이어지는 공간의 구심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도심 속 공중 정원이라는 콘셉트의 유사성 때문에 서울로 7017은 뉴욕 하이라인 파크와 많이 비교되기도 했지만, 비니 마스는 "뉴욕의 하이라인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다르게 디자인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서울로는 하이라인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폐기된 철로였던 하이라인과 도심 한가운데의 다양한 공간을 통과하는 서울로는 전혀 다른 기획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로 7017은 그 자체가 공중에서 보면 나무 모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자라나듯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다. 서울로 7017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서울역과 남대문, 명동, 남산 등 시내 주요 관광지를 17개의 길로 연결해 산책하듯 돌아볼 수 있다. 이 17개의 산책로는 각 광장과 쉼터, 서울역, 회현역, 한양도성 등과 연결되어 보다 쉽게 오갈 수 있다. 또한 고가도로 아래에선 결코 볼 수 없었던 서울 시내의 전경이 탁 트인 뷰(View)로 펼쳐진다. 서울역과

because of its similarity to the concept of an overhead garden in the city, but Winy Maas said, "I do not want to make it like New York's High Line, so I deliberately designed it differently." He stated that Seoul-ro has a completely different structure from High Line, and a different approach was required for High Line, which was a closed railroad, compared to Seoul-ro, which passes various spaces in the heart of the city. Also, Seoul-ro resembles the shape of a tree when seen from above, thus it is expected to grow like a tree over time. What makes Seoul-ro 7017 so attractive? First of all, it connects the major attractions of Seoul through 17 trails, including Seoul Station, Namdaemun, Myeong-dong, and Namsan, so one can stroll around them. Each of the 17 trails is connected to the square and the lounge areas, Seoul Station, Hoehyeon Station, and the Fortress Wall of Seoul, making it easier for you to look around. You can also enjoy an open view of Seoul, which was not previously available under





1, 2 서울로 7017의 식물들은 서울 지역 및 인공 지반에 생육 가능한 수종을 선정 '과'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치했다. 살아있는 식물도감이라 할 수 있다. 3 24시간 개방해 밤에는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서울로 7017  
가는 길

퇴계로 방면에서 서울로 시점부로  
진입하려면 지하철 회현역 4.5번 출구를  
이용하고, 중림동이나 만리동에서는  
충정로역 5번 출구에서 약 500m 이동해  
서울로 종점부로 진입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봉래동2가, 남대문로5가  
**문의** 120 다산콜센터  
**이용시간** 24시간 개방

그 주변 건물들이 이루는 야경 또한 새롭다.

한편 공중 수목원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2만4000그루의 나무가 통행인의 시야를 맑게 한다. 가나다순의 식물 배열로 미처 알지 못했던 나무들의 생김새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마치 식물도감 속을 걷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름만 알던 이팝나무가, 함박꽃나무가 바로 곁에 있다. 228종의 개성 있는 식물들이 이 고가 위에 뿌리를 내렸다. 나무들은 대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울창한 숲이나 시원한 그늘을 기대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 막 다시 태어난 공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풍성해지고, 공간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애정과 친밀함이 계속 깃들 것이다. 텅텅한 무채색의 둥근 화분들 위로 덩굴 식물의 신선한 초록이 가득 내려앉을 몇 년 후가 그려지는 것은, 분명 이 공간이 지닌 배려심 때문일 터이다.

남대문으로 시작해 만리동까지 고가 위를 걷는다. 길바닥 중간중간 뚫린 스카이워크를 통해 1970년대부터 이어온 이 오래된 구조물의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시간의 힘이 고스란히 배어 든 그 위에서,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나는 싱그러운 식물들과 함께, 우리의 지금을 가만히 가늠해본다. 그러기 편 좋은 길이다. S

the overpass. The night view of the Seoul Station and the surrounding buildings is also new. As an overhead arboretum, there will be 24,000 trees before your eyes. The trees will be arranged in the order of Hangeul, so you can observe the appearances of different trees, as if you are walking through a <botanical book>. You can even stand next to the Retusa fringe tree and the magnolia tree. Seoul-ro has 228 species of unique plants laying roots over the overpass. The trees are mostly young, so you may be disappointed if you are expecting a luxurious forest or shade. However, this space has just been reborn. It will become more abundant, and it will be filled with affection and intimacy over time. You can imagine a space of fresh green vines crawling over the round plant pots in monotonous colors in a few years' time because of the space. Additionally, you can look into this old structure, which has existed since 1970, through the hollow Skywalk all over the overpass. You can contemplate where you are today along with the fresh seedlings over a space that reflects the power of time. It is a space that is just right for that purpose.



# 여유로움으로 빛나는 아시아의 美 The Asian beauty that sparkles at a leisurely pace

완벽한 휴식을 안겨줄 지상낙원. 미려한 풍경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섬나라 인도네시아.  
다양한 매력이 넘쳐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설화수는 아시아의 미와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셔터스톡







푸른 인도양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섬

얼마 전 종영한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의 배경이었던 인도네시아의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배우들의 좌충우돌, 고군분투 식당 경영기도 재미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끌었던 건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이 가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바다거북이 유유히 헤엄치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지고, 가벼운 옷차림의 여행객들이 평화롭게 태닝과 해수욕을 즐기며, 저녁이면 석양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곳. 휴양지다운 여유로움과 경쾌함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발리(Bali)는 허니문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들여다볼수록 다채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부터 고급 풀빌라까지 다양한 숙소가 자리하고, 무수히 많은 사원들과 예술인들의 거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이 있는가 하면,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와 고급 레스토랑, 트렌디한 바와 펍, 로컬 디자인어숍, 갤러리 등 저마다의 매력을 선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자카르타(Jakarta)는 또 다른 모습이다. 복잡한 빌딩숲과 대규모의 쇼핑몰 등 휴양지에서 벗어난 도시의 삶이 펼쳐진다.

파도가 아름다운 해변. 정성스럽게 꾸며진 사원 등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An island sparkling with the surrounding blue Indian Ocean

Indonesia's Gili Trawangan became the background of <Yoon's Restaurant>, a tvN's entertainment series that ended a while ago. It was fun to watch actresses struggling to run a restaurant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but what was more eye-catching was the beautiful scenery of Indonesia's small island. The sight of the emerald sea, where sea turtles swim around, is all around you, and lightly dressed tourists peacefully enjoy tanning and sunbathing until the sunset beautifully stains the sky in the evening. It was relaxing just to be in the leisurely uplifting resort. Bali, one of the most popular vacation destinations in Indonesia, is widely known as a honeymoon spot, but it has much more to offer as you look closer. There are many types of accommodations, from guest houses to luxury pool villas, and you can experience Indonesian culture at the countless temples on the artistic streets. There are beaches with large waves that are perfect for surfing, and there are many cafés, luxury restaurants, trendy bars, pubs, local designer shops, and galleries with unique charms. Jakarta, the capital of Indonesia and the center of it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is quite different. It is a city of urban life with forests of buildings and mega-sized shopping malls.





- 세이부 그랜드 인도네시아  
Seibu Grand Indonesia
- 소고 플라자 스니안  
Sogo Plaza Senayan
- 소고 켈라빠 가딩 몰  
Sogo Kelapa Gading Mall
- 소고 센트럴 파크 몰  
Sogo Central Park Mall

인도네시아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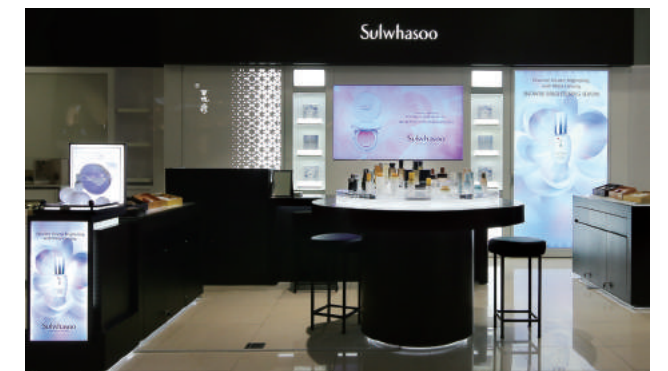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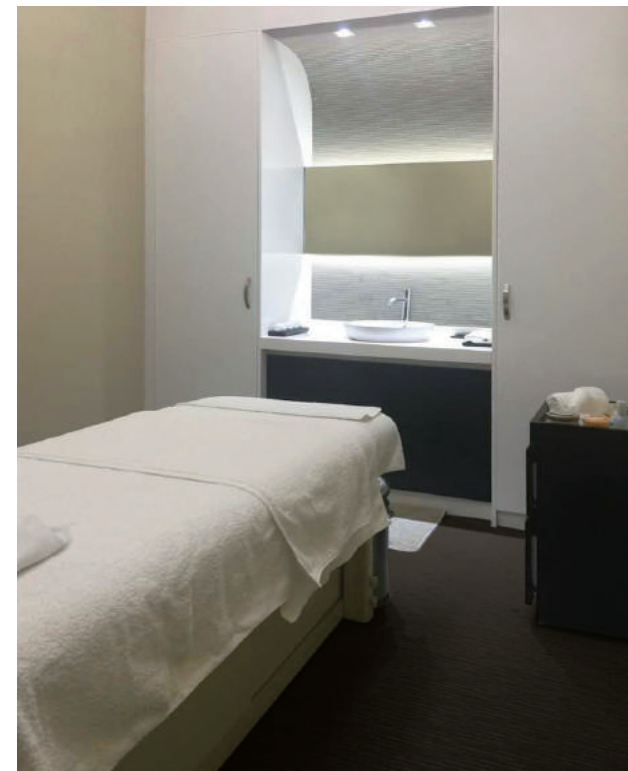
### 설화수, 인도네시아를 사로잡다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자, 젊은 노동력과 젊은 소비층을 바탕으로 생산 대국에서 소비 대국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이런 인도네시아 경제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자바 섬의 중추 도시이다. 이곳에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오픈한 설화수 소고 센트럴파크몰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쇼핑몰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시원하고 편리한 쇼핑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소고 센트럴파크몰은 자카르타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 쇼핑몰로서, 명품과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 백화점과 고급 편집숍이 즐비하다. 설화수 소고 센트럴파크몰 매장은 2017년 4월 리모델링으로 인도네시아 최초 스파 캐빈을 도입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설화수 50주년 행사를 비롯한 각종 후원행사를 개최하는 등 설화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대표 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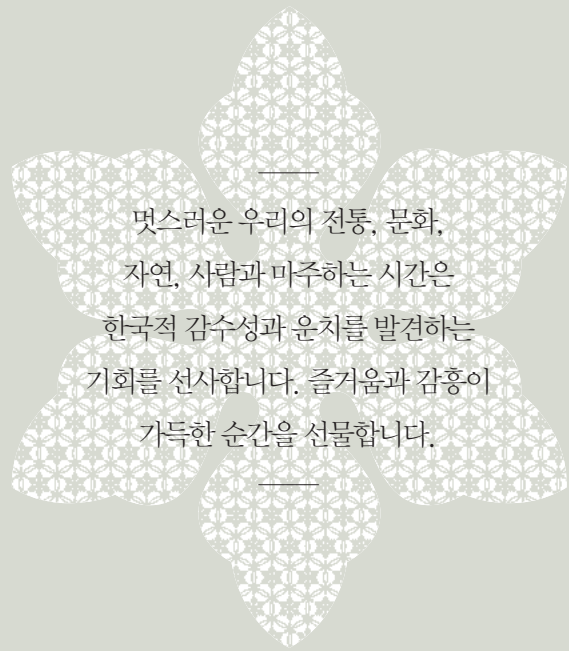
설화수는 과거 서구 여성을 닮고 싶어 하던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아시아의 미로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이엔드 클래스 브랜드로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S

### Sulwhasoo captures Indonesia

Indonesia is the fifth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and is evolving into a major nation of consumption with young workers and consumers. Jakarta is the central city on the Java Island that takes about 60% of Indonesia's economy. There, Sulwhasoo's fourth store in Indonesia is located at Sogo Central Park Mall. Because of its hot and humid climate, Jakarta has many shopping malls, and many people spend time there for their cooling and convenient offers. Sogo Central Park Mall is a major shopping mall in Jakarta that has the highest foot traffic, and features many premium designer brands and global brands in the department stores and in premium brand select shops. Sulwhasoo's Sogo Central Park Mall store was remodeled in April 2017 to provide distinct customer service with Indonesia's first spa cabin. It also holds various sponsorship events, including the 50th anniversary of Sulwhasoo, to introduce the Sulwhasoo brand to a larger number of people. Sulwhasoo is playing a major role in shifting the Indonesian women's standards of beauty from Western influence to that of Asian beauty. As a high-end brand, it has firmly captured the hearts of many young women in Indonesia.



설화수 인도네시아 대표 매장인 소고 센트럴파크몰. 인도네시아 최초로 스파 캐빈을 도입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의  
관



짓기를 멈추지 않는 ‘황경신’이라는 꿈  
The dream of Kyungshin Hwang to  
continue ‘building’

# Hwang Kyungshin

황 경 신

황경신 작가는 사진 촬영 중이었다. 당대 트렌드를 이끌던 잡지 <PAPER>의  
기자 시절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마침내 촬영이 끝나고 높은 의자에서 내려오다 그녀는 잠시 휘청거렸다.  
촬영용으로 신은 노란색 하이힐 때문이었다. 길이 잘 든 낮은 가죽 샌들로 갈아 신으며 그녀가 말했다.

“높은 구두는 신지 않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신어요.”

황경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여전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없다는 게 확실하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그만큼 많은 다른 생명체들과 무생물과 온 우주가 매일같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별천지에서 확실한 건 없다. 그래서 그녀는 이 불확실한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짓는다. 글을 짓듯 자기 자신을 지어나간다. 누군가가 확실하다고 말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길을 정한다. 세상이 제멋대로 규정한 확실하다는 것들을 굳이 손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소위 확실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좋은 차나 집이나 그걸 살 수 있는 돈이나, 그런 걸 갖는다고 내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또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면 그만이죠. 그래서 글을 짓듯 나를 짓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요.” 배움은 스스로를 짓는 재료가 된다. 재료는 풍성할수록 좋으므로 그녀는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플라멩코를 배웠고 요리를 배웠고 신화와 기타를 배웠고 수영을 배웠다.

“할 수 없던 걸 할 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배운다는 건 글을 쓰는 느낌과 비슷하죠.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짓는다’는 행위를 밖으로 표현하는 게 글이라면, 내 자신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건 배움인 것 같아요.” 그녀는 끝을 보기 위해 인간됨을 쓰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 배운다. 배웠다고 꼭 말할 필요도 없고, 배운 걸 꼭 써먹어야 할 필요도 없다.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못하던 걸 해내면서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죠. 못하

Our talk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nothing definite in this world.' Nothing is definite in a world where there are countless people and all kinds of living organisms and non-living things as the universe rotates and revolves every day amid passing time and global changes. Therefore, she is building things to survive in this infinite world. She is building as she is writing. She is not moving forward to the direction that is definite, but she is exploring her own way. She is not struggling to achieve what is defined by the world.

“I have to accept myself from the day I was born until I die. I don't think my life is complete with the so-called proof of acquiring an expensive car, a house, or the money to buy them all. Those things are fleeting, and I can lose them, or they can disappear. So I constantly have to learn to improve myself through my writing.” Learning becomes the basic material for developing her abilities. When it comes to materials, the more abundant they are, the better, so she does not hesitate to study them when she wants to learn how to use them. She learned to dance the flamenco, how to cook, understand mythology, to play the guitar, and to swim.

She is not struggling to meet her goals. She learns for her own contentment, pleasure, happiness, and joy. There is no further need to do something well because she has mastered it or she could apply what she learned.

“Even if you are not in competition, you can upgrade your skills when you achieve something you





는 사람이었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만들 수 없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없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문을 두드린다. 새로운 세계라는 문. 그 문을 지나면 또다시 나타나는 문. 아직까지 열어보지 못한 수많은 문에 대한 기대. 그 문을 거치며 ‘황경신’이라는 사람이 천천히 완성되고 있다고 했다.

황경신이 짓는 글은 황경신을 꼭 닮아 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짓는 글은 어떤 글이냐는 말에 주저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그때 내가 가장 쓰고 싶은 걸 쓰죠. 나한테 제일 재미있는 거. 그러는 게 저를 위해서도 독자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시선으로 타인이 좋아할 것 같은 글을 쓰는 건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정작 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기까지 그녀도 훈련이 필요했다. 처음에 자기 스타일을 찾기 위해 짧은 글이라도 매일 쓰는 연습을 했다. 세 문장 정도라도 꾸준히 매일. 처음에는 내가 뭘 쓰지 하다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을 겪거나 사물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쓸 것이 떠올랐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문장으로 사고를 하기도 해요. 생각이 하나의 문장으로 변화하는 거죠. 더 이상 앞서서 글을 짜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글을 짓는다는 건 운동선수가 체력 훈련을 하는 것과 같아요. 시험이 없어도 연습을 해야 하죠. 글 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루만 건너뛰면 두 배로 힘들어져요.” 그러나 흔적을 남겨야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이런 연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듯, 인간에게도 창조의 본능이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유독 새롭게 만들어내야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그런 부류이기

couldn't do before. That is enough. Becoming someone who can do something, being able to cook something you couldn't cook before, and understanding a story you couldn't understand before would be an achievement.” She always knocks on the door when there is something she wants and needs: That is, the door to a new world, and a new door past another door. There are many expectations for the countless doors she has not opened yet. ‘Kyungshin Hwang’ is slowly opening these doors.

What she is writing looks just like her. She has her own style, which is incomparable. She explained the type of writing that she has created without hesitation:

“I write about what I want to write about the most every time. I write about what is most interesting for me. I believe it is good for me and for the readers.”

She needed training to discover what it is that she wants. She practiced writing short pieces every day to find her own style. She wrote about three sentences every day. She had to think about the topics at first, but it soon became a habit for her to think about what to write when there was an experience or a unique object that she found inspiring.

But if you don't discover the meaning of life with the steps you take, you don't have to break a sweat in practice. God created men with the instinct to create. However, it isn't true for everyone. There are people who find happiness in creating something new, and she trains herself every day because she is one of those people.



때문에 매일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 모두가 창작을 할 필요는 없죠. 내가 타고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드는 길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언젠가 썼던 글의 뒷예기를 들려줬다. 어느 날 집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했다. 조율하는 사람이 오면 그저 맡겨놓고 다른 일을 봤는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 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됐다. 여든여덟 개가 전부 다른 소리를 내는 건반이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져지고 있었다.

“우리가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면 하나의 단일한 걸로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 개념대로라면 피아노를 조율할 때 모든 음이 ‘가온 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도’는 ‘도’ 소리를 내고 ‘레’는 ‘레’ 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 어울려 연주할 수 있죠. 조화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두 노란 꽃이 되는 게 조화가 아니라 분홍, 빨강, 보라 등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어울리는 게 조화예요. 네가 나와 같은 소리를 내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이 조화로워지는 기본 같아요.”

그러니 무언가를 써야 행복해지는 자기의 훈련을 꼭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도’인지 ‘레’인지 ‘미’인지, 어떤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그걸 찾으며 그 게 무엇이든 자신만의 ‘짓기’를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다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확실하다는 전제를 기억하고 언제라도 거침없이 다른 세상의 문을 노크해보라고. 그렇게 어디에도 없는 자기 자신을 지어보라고, 길이 잘 든 가죽 샌들을 신고 자유로워진 그녀가 말했다. S

“Not everyone in the world has to create something. Do what you like as you were born to do. Wouldn't that keep the world in harmony and balance?”

Then she talked about a piece she wrote. One day, she learned to tune her piano. She did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the tuning process, but, that particular day, she did. Eighty-eight keys that result into different sounds were tuned to make the right sounds.

“When you tune your opinion, it usually means everyone has the same idea. If that is the concept, all the sounds of a piano that is tuned must be ‘Do.’ But that is not entirely true. ‘Do’ creates the sound of ‘Do,’ and ‘Re’ creates the sound of ‘Re.’ That is how you perform harmonious music. I believe that is also true for achieving harmony. Not all flowers should be yellow, but some must be pink, red and purple to blend with one another. The basic step in creating a harmonious world is not forcing everyone to make the same sound.”

She said there is no need to pay attention to her training to be happy by turning to writing. What is important is to find whether you are ‘Do,’ ‘Re,’ or ‘Mi,’ and how you can make beautiful sounds. When you find that and ‘build’ something for yourself, you can be happy. Just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definite in this world, and knock on the door to another world whenever you can. “Mold yourself into someone who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she said liberally in leather sandals, which have been fitted into her feet over time.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희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엔디엔템, 템(02-3447-7701), 모노특시, 케이트앤켈리(02-508-6033), 캠퍼(02-512-4393)





- 1 프렌치 무드의 아이보리색 앤틱 콘솔은 르네가구.
- 2 그레이션된 기하학 모양의 그린 화병은 마요.
- 3 유리를 직접 불어 만든 블루 크리스탈 저그는 챔터원.
- 4 빈티지한 유리 화병과 오브제는 모두 페르미타.
- 5 호리병 형태의 유리 화병은 yido atelier.
- 6 클래식한 디자인의 화이트 패브릭 암체어는 마렘.



## 시원함이 가득한 공간에 머물다

경쾌한 컬러나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패턴,  
 시원함을 품은 소재로 공간을 꾸미면 한결 쾌적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견디지 말고 시원하게 즐기자. 쿨 인테리어와 함께,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 이국적인 분위기 물씬~ 한여름 휴양지로의 초대

초록색 식물은 공간에 상쾌함과 생기를 불어넣는다. 식물 모티프 패턴의 리넰 패브릭 소품과 대나무, 라탄 등 여름 소재로 만든 가구. 이국적인 분위기의 소품은 감촉은 물론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선사해 여름에 사용하기 제격이다. 또, 쿨 다이닝 웨어로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보자.

**왼쪽 페이지** 1 트로피컬 패턴의 패브릭은 아임디자인 물, 2 오벌 형태의 스몰 바스켓은 하우스라벨, 3 진한 그린 컬러의 유리잔은 하우스라벨, 4 그린 유리 화병은 HOUSE DOCTOR by 8colors, 5 그린 컬러 와인 잔은 챗터원, 6 핸드페인트 세라믹 볼은 하우스라벨, 7 화이트와 골드가 배색된 컵틀러리는 모두 BELINOX by 8colors, 8 타원형 유리 접시와 유리 볼은 모두 La Mediterranea by 스마일리지, 9 각진 형태의 유리 화병은 하우스라벨, 10 블랙 원더 체어는 TON by 8colors, 11 패브릭 쿠션은 키티버니포니. **오른쪽 페이지** 1 보타나컬 패턴 쿠션은 모두 아임디자인물, 2 기하학 패턴 쿠션은 키티버니포니, 3 리넰 블랭킷은 위켄드인 by 챗터원, 4 나무의 질감을 살린 우드 슬랩 메이플 테이블은 윌드, 5 블루 패턴 바구니는 멕시코 제품으로 볼락스튜디오, 6 그린 유리 화병은 하우스라벨, 7 투톤 그려데이션된 화병은 마요, 8 자연 소재 아트워크 패브릭은 몽시노,





**왼쪽 페이지** 1 블루 컬러의 패브릭 3인 소파는 도이치 가구. 2 블랭킷은 하우스라벨. 3 패턴 쿠션은 TINE K HOME by 하우스라벨. 4 리넨 쿠션은 키티버니포니. 5 페르시아 카펫은 챔터원. 6 라운드 테이블은 모두 노트 르몽 by 마렘. 7 도자기 사과 오브제는 김규태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8 알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조화를 담은 화병과 컵은 모두 Tail. 9 리사이클 그린 베이스는 Serax by 8colors. **오른쪽 페이지** 1 화이트 펜던트는 아떼 라이팅. 2 우드 선반장은 크레이트 디자인랩. 3 블루 컬러의 도자기합은 김규태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4 블루 컬러로 그라데이션된 유리 오브제는 양유완 작가. 5 원형 유리 화병은 페르마타. 6 해저에 잠겨 있는 폐목재 산화철을 소재로 시간의 흐름을 담은 '수자나 아일랜드' 테이블은 보에. 7 황동 꽃이와 피쳐는 류연희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8 테크니컬 마블 스톤은 설희경 작가. 9 터키 빈티지 카펫은 덴스크. 10 에폭시 레진 소재에 한지를 결합한 Mist 시리즈 벤치는 손상우 작가.



### 청량감으로 무장한 블루 컬러 스페이스

여름을 대표하는 컬러 블루. 다양한 색감의 블루는 집안의 청량감 지수를 높인다. 블루를 메인 컬러로 스트라이프, 모노톤 등의 디자인 제품을 믹스 매치하거나 내추럴 톤의 소가구와 유리·크리스탈 소재의 소품 등을 더하면 보다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 여름의 어느 날, 바닷가에서

숨겨둔 보석처럼 아름다운 해변, 수평선 너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풍광을 배경으로 유유자적 걷는 이 길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강렬한 태양 아래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바다가 있어 여름이 더욱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 푸른 설렘으로 차오르는 여름 바닷가

여름 하면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휴가철의 달뜰 분위기 속에 북적이는 사람들로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른 생기를 품는다. 특별할 것 없어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계절의 정취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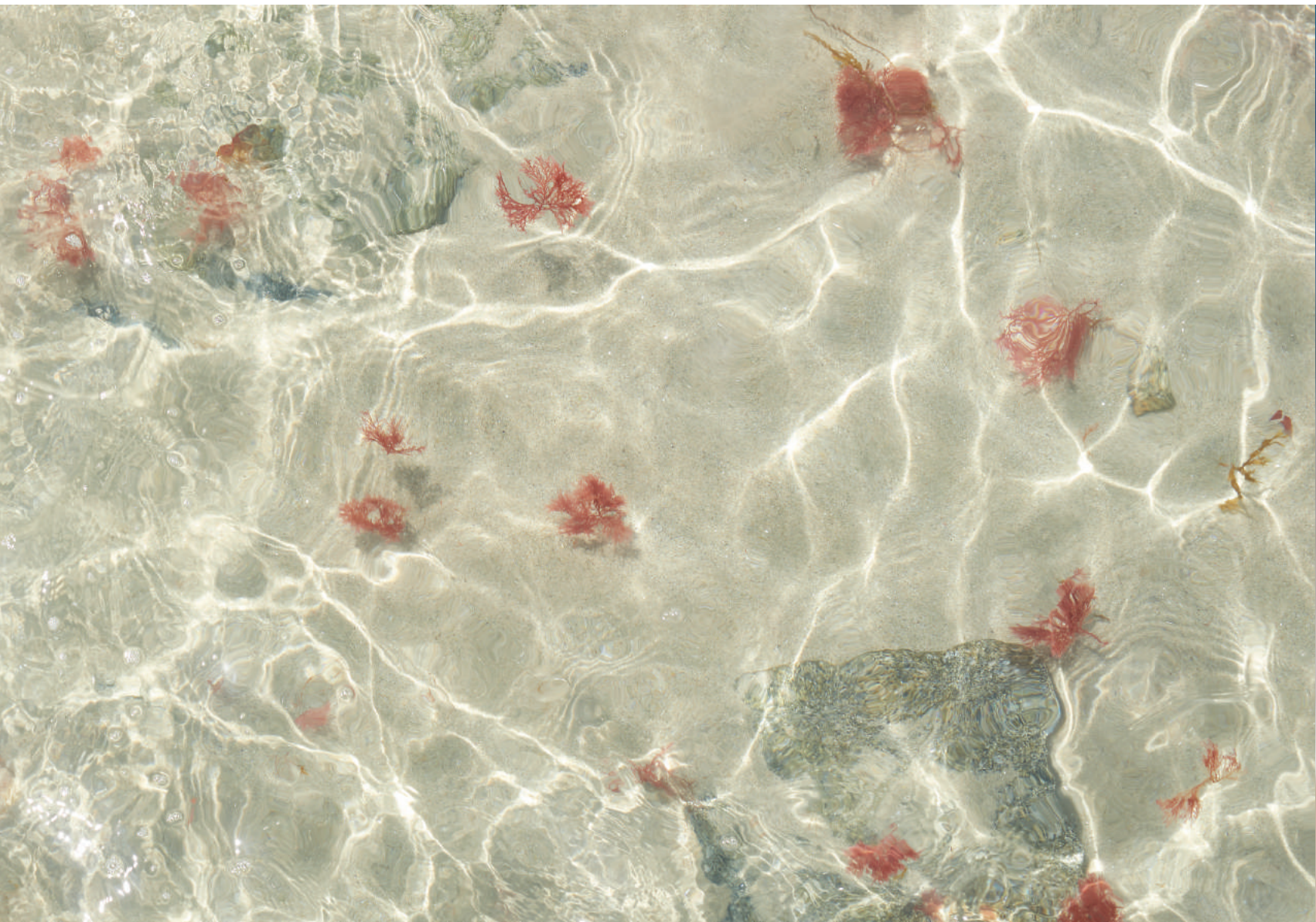


## 오래 붙들고 싶은 시간들

한적한 해변에는 여유와 낭만이 너울거린다. 고운 모래밭에 털썩 앉아 쉬다 보면  
나긋나긋한 바닷바람이 다정하게 어깨를 어루만진다. 잔잔하고 느긋한 시간 속에서의 달콤한 휴식은 넉넉한 바다가 주는  
선물일 터. 꿈꾸듯 노래하듯 다정한 바다와 마주하는 시간 속에 여름의 운치가 깊어간다.

## 강렬하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온전히 바다를 즐기다

블록 브라이팅닝(Block Brightening) 기술로 더욱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선사하고,  
백화사설초 성분이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칙칙함을 개선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준다.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고 얇게 밀착되어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상백크림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돕는 1호 소프트 글로우와  
톤업 효과를 선사하는 2호 소프트 피치 두 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상백크림 SPF 50+/ PA++++ 40ml





## 호로록 소리에 군침이 넘어가는구나

예로부터 잔칫날이면 귀한 손님께 국수를 대접했다.  
 이는 장수와 인연을 중시하는 지혜로운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듯 '정'과 '연'을 뜻하는 국수가 여름이 되면 별미로 변신하며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한다.  
 젓가락으로 길게 당겨 입에 넣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여름 별미 국수.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고소함 가득,  
 건강한 일미로 가족 모두 함께 먹어요  
**콩국수**

### 재료

콩 1컵, 소면(1인분 기준) 150g, 오이 1개, 소금 약간

### 만드는 법

1 4시간 정도 물에 불린 콩을 삶는데 콩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삶는 중간에 뚜껑을 열지 않는다.  
 2 1의 콩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30분 정도 식혀 찬물에 씻은 후 믹서에 간다. 3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삶아 얼음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놓는다. 4 2의 콩국을 면보에 곱게 걸러낸 후 국수를 담은 면기에 부은 후 채 썬 오이를 곁들여 낸다.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을 곁들여 낸다.







새콤달콤한 소스와 버무리면  
근사한 애피타이저가 돼요  
샐러드 국수

**재료**

쌀국수면(1인분 기준) 150g, 양파, 고수, 토마토, 새우, 셀러리, 쪽파, 피시 소스, 설탕, 레몬즙, 다진 마늘, 타바스코 소스

**만드는 법**

1 준비한 야채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는다(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야채를 곁들여도 좋다).  
2 새우는 삶아서 껍질을 깬 후, 편으로 썰어놓는다. 3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놓는다. 4 피시 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레몬즙 1½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타바스코 소스 1작은술을 섞어 소스를 만든 다음 함께 낸다.



고기 곁들여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열무 국수

**재료**

열무김치, 소면(1인분 기준) 150g, 곁들여 차돌박이, 설탕, 참기름, 식초

**만드는 법**

1 열무김치를 썰어 그대로 국수와 함께 먹어도 좋지만 열무김치에 설탕, 참기름, 식초를 조금씩 넣어 섞어주면 더욱 감칠맛 나는 풍미를 느낄 수 있다. 2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놓는다. 3 물기 뺀 국수 → 양념한 열무김치 → 구운 차돌박이 순서로 그릇에 담아 낸다.





정성 들여 만든 장국에  
 찍어 먹는 즐거움이 가득하죠  
**메밀 장국 국수**

**재료**

메밀국수(1인분 기준) 150g, 장국 국물 재료(멸치,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 청주, 맛술, 물),  
 쪽파, 무 1/2개, 간장, 설탕

**만드는 법**

1 장국 국물을 내기 위한 재료들을 하루 동안 물에 불려 우린 후, 다시마를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끓인다. 2 폭 끓인 1의 재료를 면보에 거른 다음 간장과 설탕을 넣고 다시 한번 끓인다. 3 국수는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빼놓는다. 4 무는 갈아서 즙을 만들고 파는 작은 크기로 썬다. 5 국수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2의 장국에 물을 넣어 희석시켜 그릇에 담아 낸다.



# 숨겨진 오아시스를 찾는 모험

## Sahara & Gobi

사 하 라 & 고 비

이 더운 날씨에 사막을 꿈꾸는 일은 조금 이상할지도 모른다. 낙타 위에서 신기루를 목격하고,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의 격차를 견디며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 여름이기에 더욱 어울리는 상상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토포 이미지, 셔터스톡







사하라에 이르기 위해선 대개 모로코를 통과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맨 서쪽, 모로코는 '아프리카의 붉은 별'이라고도 불린다. 유럽이 지척이면서 아프리카의 관문이기도 하다.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는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언덕의 곡선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나타난 금발의 아름다운 소년을 만난다. 양을 갖고 싶은 자그마한 친구를. 생텍쥐페리가 대면한 사하라는 황량한 불모지였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환상처럼, 그렇기에 희망을 놓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사하라는 죽음의 땅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사막에서의 하룻밤은 많은 여행자들이 언젠가 꼭 실현하고 싶어 하는 꿈이다. 사하라사막 투어의 주요 거점은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ch)로 영화로도 유명한 모로코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 남쪽 아틀라스 산맥 북쪽 기슭에 위치한다. 사하라로 가는 여행자는 대개 카사블랑카로 들어가 국내선으로 마라케시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막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메르주카(Merzouga)에 이르면 본격적인 사하라 체험이 시작된다. 마라케시에서 메르주카까지는 9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기 때문에, 제대로 사막을 체험하려면 적어도 2박 3일의 일정이 필요하다. 사하라는 밤이 되면 급격하게 차가워진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엔 영하로 떨어지는 밤공기에 대비해야 한다. 캠프 사이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튀니지의 전통 음악을 듣고, 달과 별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래 산을 바라보는 사막의 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The pilot of a plane that crashed in a desert was staring at the curves of the endless sandy hills. Then he met a beautiful blond boy who appeared from nowhere. The Sahara, in the eyes of Antoine de Saint Exupéry, was a barren, desolate land, but it had the most beautiful night sky. That was probably why he could not give up hope. The Sahara is called the land of death. However, spending a night in this desert is usually on the itinerary of many travelers. The hub of the tour of the Sahara is Marrakech, Morocco, which is located on the northern foot of the Atlas Mountains to the south of Casablanca, the largest city of Morocco that is also known for a movie that was shot there. Travelers to the Sahara usually go to Casablanca, and take a domestic flight to Marrakech. Their trip to the Sahara begins when they reach Merzouga, which is the gateway to the desert. Since it takes more than 9 hours to go from Marrakech to Merzouga, it takes at least 3 days to enjoy the desert. The Sahara quickly cools at night. You have to be ready for the night as the temperature drops below 0 in the winter from January through March. It will be an unforgettable memory to sit around the campfire to listen to the traditional music of Tunisia, and watch the beautiful sandy hills that sparkle under the moonlight and starlight.





고비 사막의 동쪽은 하천이 있어 곳곳에 초원이 발달해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모래사막이다. 드넓은 사막엔 일교차가 커서 신기루가 종종 나타나는데 중국의 전설에선 '쿤룬산崑崙山에는 5개의 성과 12개의 누각이 있다'고도 전한다.

고비사막을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은 개인 자유 일정을 따로 마련하기도 힘들고 씻는 것조차 편하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도 다녀온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다시 가고픈 여행지로 남는 곳이 바로 몽골이다. 고비사막은 몽골과 중국에 걸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고비'는 '풀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라는 뜻의 몽골어에서 유래했다. 과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횡단하다 목숨을 잃기도 한 척박한 곳이지만 동서 1600킬로미터, 남북 1000킬로미터의 광대한 이 지역의 가능성과 매력은 무한하다. 아름다운 볼거리와 이국적인 체험들이 가득해, 도전을 좋아하는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고비사막으로 모여들고 있다. 고비사막 투어는 보통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이뤄진 팀과 운전사, 가이드 겸 요리사를 동반해 떠나게 된다. 드넓은 초록 평원이 하늘에 가닿아 이룬 지평선과 함께 몇 시간이나 달려 각 거점으로 이동한다. '불타는 절벽'이라 알려진 바양작, 낙타로 이동하기 좋은 홍고린 엘스, 독수리의 부리를 닮은 협곡 울린암 등 드라마틱하고 신비한 지형들이 펼쳐진다. 또한 몽골 유목민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지내는 하룻밤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여행자로써 새로운 지평이다. S



It is never easy to travel around the Gobi. Usually, it is even more difficult to find some free time or to find a washroom. However, Mongolia is often remembered as the most beautiful place where many people want to go back to despite the inconveniences. The Gobi is the largest desert in Asia that spans from Mongolia to China, and the name 'Gobi' comes from the Mongolian term, meaning, 'a rough land where no grass can grow.' This vast region, which spans 1,600 km from east to west and 1,000 km from north to south, has infinite possibilities and plenty of charm. Filled with many beautiful things to see and exotic experiences to cherish, many travelers who love challenges are coming to the Gobi. The Gobi tour usually starts from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where a team consisting of a guest house attendant, a driver, and a guide/cook offers you convenience for the duration of the trip. You can ride into the horizon where vast, green plains meet the sky for hours until you reach the base camp. There are many wonders of nature there, including Bayangzag, known as 'the burning cliff', Khongor Els, which is an ideal place for traveling on a camel. Also, spending a night in a ger, the traditional home of Mongolian nomads, is a new type of adventure that you cannot experience anywhere else.



## 여름 햇살 아래, 수분 촉촉 산뜻하게

강렬한 자외선으로 인해 쉽게 수분을 빼앗기는 여름철, 피부는 목마르다.  
밸런스가 깨지고 메마른 피부에 시원한 그늘과 상쾌한 수분을 전하는 수올 라인으로 촉촉한 민낯을 드러내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 수올 크림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Cream

일 년에 한 번, 봄비가 내릴 무렵 깊게 차오른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으로 피부에 시원한 수분  
그늘을 형성해 생기 있게 수분을 충전하고, 충전한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게 도와주는 수분 크림. 청량감 가득한 향과  
끈적이지 않는 부드러운 텍스처가 은은한 마무리감을  
전달해 강한 빛과 열에 지친 피부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How to Use** 적당량을 덜어내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아침에는 메이크업 제품과 믹스하여 사용해  
보다 촉촉한 수분 메이크업으로, 밤에는 얼굴에 도통하게  
발라 수분 진정 수면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른쪽 제품은 수올크림 디럭스 리미티드 에디션  
대용량 제품(75ml)으로 한정 판매된다.





수율수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Water

청량한 수분감으로 피부 내면까지 촉촉하게 적셔주어, 산뜻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정돈해주는 워터 타입 스킨 기법고 산뜻하게 흡수되어 피부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며, 피부 결을 정돈해 수분감 가득한 피부 비탕을 완성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발라준다. 수분 진정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수율 수딩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화장 솜에 수율수를 충분히 적신 후 이마, 양쪽 볼 등 수분 진정이 필요한 곳에 올려둔 후, 화장 솜이 완전히 마르기 전(10~15분 정도)에 떼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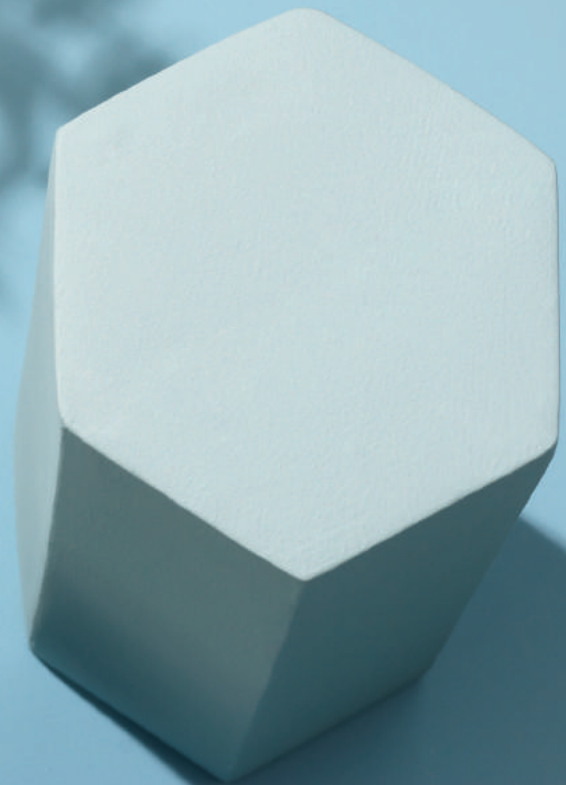
\* 수율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여름 한정 판매된다.

수율선펠루이드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UV Protection Fluid

수분 공급과 동시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분 선펠루이드, 자차나무 수액과 맥문동, 인삼 잎과 줄기 추출물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비탕을 완성한다. 동시에 자외선을 차단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스킨케어와 같이 가벼운 사용감으로 덧발라도 밀림 없이 자연스러운 수분광을 선사해주어 부담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다. **How to Use** 아침 손질 시,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부드럽게 발라준다.







수율미스트  
Hydro-aid Moisturizing Soothing Mist

뿌리는 순간, 시원한 청량감과 촉촉한 수분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수분 진정 미스트. 설화수 대표 보습 원료인 맥문동 추출물과 새싹삼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수분을 가득 채우고 스며든 수분을 오래도록 유지시킨다. 미세한 입자가 균일하게 분사되어 보다 부드러운 사용감을 선사하며, 상쾌한 향은 피부에 평온함을 안겨준다. **How to Use** 건조함이 느껴질 때, 수시로 얼굴에서 2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서 눈을 감고 얼굴 전체에 가볍게 뿌려준다.



**수율 라인** 유난히 덥고 자외선이 강한 여름,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어 지친 피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수분 진정 솔루션. 수분 보충은 물론 피부에 충전된 수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케어해야 한다. 설화수 수율 라인은 세 가지 메인 원료를 통해 피부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고 피부 갈증을 해소한다. 진정 효과가 뛰어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맥문동이 수분을 공급해 촉촉함을 채우며, 새싹삼 성분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 피부에 촉촉하고 산뜻하게 흡수되어 편안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뜨거운 열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여름철 피부를 생동감 있게 살려줄 수율 라인, 청량한 수분케어와 더불어 싱그러운 하루를 약속한다. S

**Hydro-aid Moisturizing Line** This summer is hotter than ever with particularly intense UV rays. Your tired skin can be exposed to various aggressors and is in need of a moisture-soothing solution. You will need meticulous skincare with a product that can replenish your skin with moisture and fortify the skin barriers so they will not lose moisture. The Sulwhasoo Hydro-aid Moisturizing Line has three main ingredients to soothe your skin and to quench its thirst effectively. The birch sap soothes the skin, while Liriope Platyphylla supplies moisture and Ginseng Sprouts fortify the skin barriers to keep moisture inside. Also, it feels moisturizing and refreshing upon use as it penetrates the skin for a comfortable finish. The Hydro-aid Moisturizing Line is capable of cooling off the summer heat and can rejuvenate the skin to guarantee a refreshing day with cooled skin.





## 루프탑 티 카페에서 맛보는 설화수의 감성 The sentiments of Sulwhasoo can be tasted at the rooftop tea café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루프탑은 나만 알고 싶은, 도심 속 힐링의 공간이자 아지트다.  
이 특별한 공간에서 설화수의 달콤한 정성과 마음을 맛보고 느낀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루프탑에서는 더운 여름을 식힐 시원한 다과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매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기그릇에 곱게 담은 오방색 아이스 모찌와 티 컬렉션 아이스티. 기간 2017년 7월 11일(화) ~ 9월 10일(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5층에 위치한 루프탑은 도시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도심 속에서 오감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야외 라운지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이다. 하절기 루프탑 티 카페에서는 고객을 위한 아이스티와 아이스 모찌가 서비스된다.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아이스티는 설화수의 티 컬렉션으로 구성되는데 세작, 홍삼발효차, 매화차, 삼다연 제주영굴이 선택 메뉴로 마련되어 있다. 설화수 티 컬렉션은 설화수의 미학과 오설록의 노하우로 태어난 제품으로 특히 홍삼발효차와 매화차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다. 홍삼발효차는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블렌딩해 깊이 있는 풍미를 담아냈고, 매화차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100퍼센트 허브차로 은은한 맛과 향이 감성을 일깨운다. 또한 같은 기운을 전하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고운 아이스 모찌는 유기 접시에 플레이팅돼 한국 전통의 미감을 선보인다.

제품 구매 고객에게 티 카페 이용권이 제공되며, 동반 1인을 포함해 티 컬렉션 1종과 아이스 모찌 1종 세트를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신록이 가득한 탁 트인 전망을 즐기며 설화수가 마련한 특별한 맛과 정성을 느껴보자. 또한 하반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컬러링 힐링 이벤트 등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S

The rooftop space on the 5th floor of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is an outdoor lounge where you can see Dosan Park from above, and appreciate nature at the heart of the city with all your five senses. The rooftop tea café serves complimentary iced tea and iced mochi in the summertime. The iced tea that is served to cool off the midsummer's heat is brewed with Sulwhasoo's tea collection, and customers can choose from the following variants: Sejak Green Tea, Red Ginseng Blended Tea, Plum Blossom Herb Tea, Samdayeon Jeju Tangerine Blended Tea. The Sulwhasoo tea collection was born with Sulwhasoo's aesthetics and Osullo's know-how, and the Red Ginseng Blended Tea and Plum Blossom Herb Tea are exclusively served at the flagship store. The Red Ginseng Blended Tea contains blended fermented tea that has matured with Jeju cedar and precious Red Ginseng for deep flavor, while the Plum Blossom Herb Tea is a 100% herbal tea with purely elegant plum blossoms to awaken your senses with its subtle flavors. The beautifully crafted iced mochi represents the five colors for good energy, and is served on the traditional brass plates of Korea. Customers who purchase the products receive coupons to the tea café, where their selection of teas and iced mochi will be served to them plus one. Feel the special taste and the devotion of Sulwhasoo, while enjoying an open view of the surrounding greenery. Also,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is planning to host various fun events, such as the coloring healing event,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 건강한 피부를 위한 설화수의 심 없는 노력

### 한방 성분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다

설화수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행클렌징오일과 순행클렌징폼의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해 7월부터 한정 판매한다. '순행클렌징오일'은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어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없애주는 마일드한 한방 클렌징 오일이다. 피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의이인(율무)과 진피(굴껍질), 피부 각질을 정돈해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행인유(살구씨)가 주요 성분으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고 신뜻하게 제거해준다. '순행클렌징폼'은 피부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 유래 세정성분이 부드럽게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 수분막은 남겨, 순하게 작용하는 한방 클렌징폼이다. 또한 일반 클렌징폼(알칼리)에 비해 세안 후 피부 pH 변화가 적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안한 세안이 가능하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두 제품 모두 200ml에서 400ml로 업그레이드된 넉넉한 용량으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순행클렌징오일 대용량 리미티드 400ml, 7만원대/ 순행클렌징폼 대용량 리미티드 400ml, 6만2000원대(7월 한정 판매)



### 촉촉한 커버로 결점 없는 매끈한 피부를 완성하다

피부는 티 없이 매끈하면서도 은은한 수분감을 머금을 때 아름다워 보인다. 설화수는 여성들이 꿈꾸는 완벽한 피부 표현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8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퍼펙팅쿠션을 선보인다. 새로운 퍼펙팅 쿠션은 기존보다 가볍고 촘촘하게 밀착되는 제형으로 피부 결점을 깨끗하게 커버하는 동시에 설화수의 귀한 보습 성분이 피부를 감싸 촉촉한 윤기 피부로 가꿔준다. 완벽한 밀착 커버를 위한 설화수만의 '슬림핏 하이 커버리지(Slim fit high coverage)' 포물러와 '치마버섯 유래 성분'의 강력한 보습 스킨케어 기술을 그대로 담아내는 동시에, 물에 분산되는 입자 하나하나마다 코팅을 입히는 '입자 코팅 분산' 기술을 통해 제형이 뭉치는 현상을 막는 데 도움을 주어 뛰어난 밀착력과 지속력을 선사한다. 윤기 있는 소재감과 매화꽃살 문양을 담아낸 디자인은 더욱 감성적이며, 모던하고 슬림해진 패키지는 휴대하기 간편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국내 고객은 물론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피부톤과 니즈를 고려한 10가지 맞춤 컬러 솔루션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퍼펙팅쿠션 15g×2, 6만5000원대(8월 출시)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운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우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운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무엇을 담아도 바람이 살랑

## 니트백 만들기

실을 한 뿔 한 뿔 따 쓰임새 있는 무언가로 만드는 '니팅(Knitting)'은 무척 매력적인 작업이다. 겨울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니트가 여름엔 시원할 수 있었다. 어쩌면 니트는, 사계절 옳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마미공방

요즘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금손'이라 부른다고 한다. 손이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미다스에 빚낸 것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아무튼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부러운 금손이 있다면, 뜨개질을 하는 이이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고 틈틈이 뜨개질을 한다 싶으면 멋진 스웨터를 똑딱 완성하는 솜씨. 손을 끊임없이 놀리면서도 수다도 떨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면서 어느새 맞춤형 것처럼 딱 맞는 옷이 생겨나는 것은, 뜨개질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겐 무척 미스터리한 일일 터다. 그 미지의 세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 겨울보다 쉬운 여름의 니팅

니트 소재는 의외로 여름에도 많은 용도로 사용된다. 더구나 실내외 온도차가 커서 생기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얇은 여름 카디건이 필수다. 성긴 조직의 니트 소재는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유지해 주기에 적절하다. 잠깐 마실 나갈 때 들고 나갈 니트 백은 어떤가? 마

치 그물처럼 생겨서 '네트 백'이라고 하는 가방 역시 여름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소품이다. 그 밖에 모자나 시원한 색감의 썬캡 등 니트는 여름에도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다. 그중 초심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니트 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만들고 싶은 물건에 알맞은 굵기의 실과 그 실에 맞는 바늘 그리고 시간이 전부다. 인내심도 추가해야 할까? 하지만 여름 니트에는 대단한 인내심조차 필요하지 않다. 구멍이 숭숭 난 성긴 구조로, 이를 정도만 투자하면 완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름 니트가 겨울 니트와 다른 점은 실에 있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실로는 면, 마, 레이온이나 텐셀, 서머울 등이 있다. 면 소재 실은 여름 니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가공이 쉽고 내구성이 좋으며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특성이 여름에 잘 어울린다. 또한 중간에 비어 있는 중공이 있어서 무게도 가볍다.

마, 리넨도 여름을 대표하는 소재인데 흡습력이 면보다 강해 수분과 땀을 잘 흡수하고 발산한다. 피부에 찬 느낌으로 닿기 때문에 시원하다. 하지만 탄성이 부족하고 구김이 많이 가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여름 니트 백 만들기

준비물 면사(21, 24호) 코바늘(4, 5호), 가위

- 1 사슬뜨기를 6개 하고 동그랗게 마무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짧은뜨기를 11개 한다.
- 2 각각의 짧은뜨기 구멍에 짧은뜨기를 2개씩 한다.(총 22개)
- 3 사슬뜨기 2개 후 짧은뜨기 한 번(짧은뜨기를 한 구멍에 짧은뜨기) / 사슬뜨기 4개 후 짧은뜨기 한 번(사슬뜨기로 생긴 구멍에 짧은뜨기) / 사슬뜨기 6개 후 짧은뜨기 한 번(사슬뜨기로 생긴 구멍에 짧은뜨기) / 사슬뜨기 8개 후 짧은뜨기 한 번(사슬뜨기로 생긴 구멍에 짧은뜨기) 이후 사슬뜨기 8개를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 4 사슬뜨기 구멍에 짧은뜨기 7개씩, 짧은뜨기 한 줄 반복으로 입구를 단단하게 만든다.
- 5 짧은뜨기 50코 후에 사슬뜨기 50개를 하면서 25코를 건너뛰고,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손잡이를 만들어준다. 짧은뜨기 두 줄을 반복해서 완성한다.

**마미공방** 성북동 조용한 골목 한쪽에 자리한 마미공방에서는 가방이나 모자, 코스터 등 니트 소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클래스가 열린다. 천연 캔들과 향기로운 디퓨저도 제작, 구입할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3-28 / 010-9324-5643 / www.g-mamie.com



레이온이나 텐셀, 리오셀 등의 실은 화학섬유로 천연섬유에 비해 가공 공정이 까다롭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이 사용된다. 레이온은 외관상 실크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인견사라고도 불린다. 습기를 잘 흡수해서 여름 의류를 만들기 적합하지만 무겁고 공해 물질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 텐셀이나 리오셀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요즘 각광 받는 여름용 화학섬유다.

서머울은 말 그대로 여름용 울이다. 울에 레이온을 감아 꼬임을 주어 까슬까슬한 감촉으로 청량감을 높였다. 울 소재는 구김이 없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촉감을 개선하면 여름에도 잘 어울린다. 이 밖에도 페이퍼 실 등 주로 소품을 위한 니팅 실도 있다.

목적에 따라 실을 골랐다면 적절한 뜨개 방법으로 뜨개를 시작한다. 손뜨개에는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 아프간뜨기 등이 있다.

이번 니트 백은 코바늘뜨기로 선택했다. 코바늘뜨기는 사슬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등의 기본 방식이 있다. 가장 기본은 '사슬뜨기로 왼손으로 실을 잡고 오른손의 코바늘로 실을 한 번 감아 고를 만든 뒤, 그 속으로 코바늘을 넣어 실을 한 번 감아 그 코 속으로 빼면 된다. '긴뜨기'는 실을 한 번 감아서 코에 넣은 뒤 한 번 감아 빼면 바늘에 세 개의 코가 걸려 있게 된다. 이때 실을 한 번 감아 두 개의 코를 빼고 다시 실

을 한 번 더 감아 나머지 두 개의 코를 빼다. 이것을 반복하면 한 단이 완성된다. '코바늘뜨기'는 기본적으로 실에 실을 감아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의 편물을 만들 때 대바늘보다 실이 많이 들고 완성된 편물의 두께도 두껍고 견고하며 신축성 없이 모양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가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더 빠르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이나 생활 용품을 만들 때 주로 코바늘뜨기를 활용하는 편이다.

단순한 반복이 주는 힐링, 즐거움

최근 DIY 열풍이 니팅의 영역에도 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겨울에 손수 뜨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자신의 소품을 직접 만들려는 많은 이들이 공방에서 뜨개질을 배우고 있다. 좋아하는 색과 디자인으로 나를 위한, 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게다가 이 작업엔 '단순 반복'의 마성이 있다. 미세한 코들을 만들어 엮는 끊임없는 반복 작업은 일상의 스트레스도 잊게 하는 미묘한 즐거움을 준다. 어수선한 마음이 문제라면 코바늘을 들어보자. S



# 더운 여름날, 뱃보다 반가운 바람

## A breeze is better than a friend on a hot summer day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오후, 문득 땀을 식히는 부채질은 에어컨이 주는 서늘함과는 또 다른 시원함을 준다. 차르륵 펼쳐 우아하게 부치는 함죽선, 너울너울 그 움직임에 색들이 춤추는 태극선의 아름다움도 한뼉한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하늘누에

부채는 '부치는 채'라는 말이 줄어 '부채'가 된 것으로 한자어로는 '선자 扇子'라고 한다. 우리나라 문헌 중 부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는 <삼국사기> 견훤조에 "우리 태조를 추대하여 즉위하였다. 견훤은 이 말을 듣고 그해 8월에 일길찬(吉澣) 민국(閔篋)을 파견하여 이를 하례하고 드디어는 공작선(孔雀扇)과 지리산 대화살(竹箭)을 보냈다."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 언급된 '공작선'이란 공작의 깃으로 만든 둥근 부채를 뜻한다. 부채는 생활에 유용하면서도 아름다운 꾸밈으로 오랫동안 선물로 즐겨 사용됐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조선 말기까지의 풍속에 단옷날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이것을 재상과 신하, 궁중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었다고 한다. 부채는 여름날 바람을 일으킬 때뿐 아니라 벌레를 쫓고 피약별을 가리거나 불을 피울 때 등 일상에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됐다. 부채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접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부챗살에 종이를 붙여 만든 것이고, '방구부채'는 부챗살에 김(紗)이나 비단, 종이를 붙여 만든 둥근 형의 부채로 '둥글부채'라고도 한다. 둥글부채는 여름철 집 안에서 여성들이 즐겨 썼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 문양이나 연꽃, 연잎 등 다양한 형태와 고운 빛깔들로 장식했다. 부채의 바탕을 태극무늬로 장식한 태극선은 다른 부채에 비해 공간의 면분할과 강한 색상 대비로 화려함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에서만 만들고 사용한다.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는 태극은 음과 양이 우주를 상징하는 색들이 원 속에서 움직이며 만물을 생성한다. S

A fan is called 'Buchae' in Korean, meaning a stick for a breeze. Fans have become ideal gifts as they were useful in everyday life and were beautiful as decorations. According to <Dongguksesigi>, the Ministry of Craft made fans on Dano Day, and the king distributed them to prime ministers, servants, and other people in the palace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Fans not only create breeze on a hot summer day, but it also drives away bugs, shields the face from the harmful effects of the sun, and blows air to help one start a fire. Thus, they were widely used by all social classes. Fan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oldable fans' are made by gluing paper onto the frame, while 'Bangu fans' are round fans made by gluing fabric, silk, or paper onto the framem and were enjoyed by women at home in the summer. For that reason, they were decorated with the Taegeuk pattern, a lotus, a lotus leaf, and other colorful shapes. Taegeukseon is a type of fan with the Taegeuk pattern in the background that looks more colorful with the division of spaces and intense contrast in colors. It is made and used only in Korea. Taegeuk, which reflects universal principles, is composed of yin and yang, and the colors that represent the universe flow within the circle.



〈태극선〉  
870mm×540mm, 조선시대



〈조각보 부채〉  
370×210×150mm, 하늘누에





여행자의 집은 여행지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추억을 이룬다.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에서 구입한 고풍스러운 조명과 베를린의 베틀시장에서 건진 찻잔 세트.

## ‘즐거움’이라는 에너지

여행 작가 이동미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다. “그러나 즐겁게 살고 싶다”고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그러나’를 꼭 붙여야 했을 것이다.  
 <타임아웃 서울>의 이동미 편집장을 만나 최선을 다해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이동미 작가는 에디터와 여행 작가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지금 어디가 ‘힙’한지 알려왔다. 지금 편집장으로 있는 <타임아웃 서울> 온라인 미디어 역시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곳, 꼭 경험해야만 할 것들을 소개하며,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 도시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그녀의 일이라면, 자신을 위해 선택한 애장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스탄불의 가장 큰 시장인 그랜드 바자에서 구입한 조명은 지금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찻잔 세트들은 베를린의 한 베틀시장에서 발견했죠. 푸른색을 좋아해서 블루 계열의 식기나 찻잔이 있으면 바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찻잔 하나와 접시 두 개가 한 세트인데 두 세트를 20유로 정도에 아주 저렴하게 사서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동미 작가는 애장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행 중 베틀시장과 같은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시장을 꼭 둘러보라고 추천했다. 실용적이면서 아름다운 물건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대단하다고. 서울을 ‘가장 사랑하는 도시’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또 다른 최고의 도시를 물었다.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세 곳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를린, 두 번째는 방콕, 세 번째가 이스탄불입니다. 만일 여름에 간다면 베를린과 이스탄불을 권하고 싶어요. 베를린은 여름이 거의 유일하게 화창하고 좋은 햇살을 볼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도시에서 한 시간 정도만 나가도 전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도 멋지죠. 특히 이스탄불의 야

경은 그 어디보다 아름다워요. 도시를 에워싼 골든혼과 보스포루스 바다, 이국적인 모스크, 언덕 위에 빼곡한 집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곳에 가서만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여행 작가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독특한 감식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 더욱 유용해지는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게 아닐까? 그녀만이 목격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

“베를린을 여행하다 보면 현지인들의 오래된 것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위해 기존의 것을 없애는 일은 거의 하지 않죠. 거대한 상수도 파이프 공장은 클럽이 되고, 히틀러 시대의 병커는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 컬렉터의 개인 갤러리로 개조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우고 싶은 역사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쉽게 없애지 않아요. 오래된 것에 대한 욕심과 고집을 멋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인상적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맛본 것을 이름의 독자들들과 공유하고, 서울의 매력을 세세하게 발굴해내는 그녀의 일 역시 내게 멋져 보였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때는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식스 먼스 오픈’이란 이름의 바를 운영하는 그 열정 역시 즐겁다. S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이집트 모더니즘의 중심이 되었던 초현실주의 경향의 기록을 볼 수 있는 당대의 작품들. 다섯 개의 섹션으로 이집트 초현실주의의 역사와 전개, 반파시즘, 탈식민주의 운동 등을 통한 국제 초현실주의 단체들과의 연결고리를 조명한다.

## 현실 저 너머에 있을 자유를 위해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는 거울처럼 지금을 비춘다.  
이성이나 이념의 방해 없이,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솔직함과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 현실이 바라는 어떤 것들을 쉬지 않고 노래한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있을까? 인류의 문명을 선도하던 그들이 지금까지 꽃피운 미술의 근현대사가 궁금하다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마주할 수 있다.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전은 이집트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전후 시기 이집트와 국제 초현실주의 단체에서 활약했던 예술가들의 역사를 돌아본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고 샤희자 미술재단, 카이로아메리칸대학이 협력한 이 전시는 지난해 이집트 카이로 팰리스 오브 아트에서 진행되었던 동명의 전시 〈When Art Becomes Liberty: The Egyptian Surrealists (1938-1965)〉가 확장된 기획이다. 여기에 국제적 관점에서 본 이집트 초현실주의와 이집트 초현실주의 사진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20

세기 국제 사회의 반(反)파시즘, 탈식민주의 운동의 흐름 안에서 이집트 초현실주의 작가의 활동을 따라가보는 이 전시는, 근대 시기 모더니즘 예술과 문학의 발전 양상을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집트의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 학살의 비극과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며, 현실을 초월하고자 한 데서 시작했다.

전시는 크게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국제적 시각에서 본 이집트 초현실주의'로 기획된 1부에서는 이집트 초현실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국제적 상황과 당대 초현실주의자들의 연결고리를 조명한다. 전쟁의 비극을 겪은 몇몇 이집트 예술가들은 철저한 정신적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현실을 초월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 무의식에 기반을 둔 초현실주의를 일으킨다. 여기에서 초현실주의는 미술 양식에 머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회화, 사진 아카이브 등 출품작 중 상당수가 이집트를 벗어나 해외에서는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강령이었다. 이들은 사회 비판적이고 도발적인 제스처를 통해 새로운 표현 방법을 실험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앙드레 브르통과 주요 구성원들은 더욱 국제적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고자 '독립혁명미술국제연합'을 설립했다. 이들의 선언은 유럽을 넘어 남미까지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집트 초현실주의 운동을 선도했던 시인 조르주 헤네인은 프랑스 유학 중 브르통과 긴밀한 교류를 맺고 이집트로 돌아와 자국의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초현실주의 모임을 조직하고, 이집트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2부에서는 이집트 초현실주의의 선구적 그룹이었던 '예술과 자유 그룹' 구성원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조르주 헤네인이 람세스 유난, 푸아드 카밀, 안와 카밀, 카밀 알텔미사니 등과 전시 및 출판 활동으로 시작한 '예술과 자유 그룹'은 1938년에서 1945년 사이 '자유 미술전'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5회에 걸쳐 개최했고, 각종 진보 매체를 통해 그들

의 이데올로기와 미적, 이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조직의 실험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이집트 근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부는 '이집트 초현실주의와 사진'을 집중 조명한다. 사진은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의 예술 실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 레이, 모리스 타바르 등 다른 초현실주의 사진 예술가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작가들은 이중 노출, 솔라리제이션, 뒤틀립, 조합 인쇄 및 포토 몽타주와 같은 기술로 사진 매체에 대한 독창적인 실험에 몰두했다.

이 전시에서 포커스로 다루고 있는 사진 예술가인 반 레오는 195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한 초상화 제작자다. 그의 대표적 작업들은 주로 자신의 자화상으로, 글라스 실드를 사용해 프레임 샷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과장된 그림자를 만드는 조명 효과를 주는 등 다양한 사진 기술들을 실험했다. 그는 초현실주의를 학파나 철학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의 많은 작품들에 나타난 실험적인 언어들은 당대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비유와 시각적 어휘와 맥을 같이하였다.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에 걸쳐 전시된 회화로 꾸며진 4부에서는 1946년부터 1965년까지 활동했던 '현대 미술 그룹' 구성원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 교사였던 후세인 유시프 아민이 이끌었던 이 단체는 케말 유시프, 하미드 나다, 압둘하디 알 자제르, 이브라힘 마스우다, 사미르 라피, 마히르 라이프 등 이후 이집트 현대 미술계의 선구자로 입지를 다진 핵심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새로운 창조에 있어 예술과 지성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예술이 이집트를 현대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으며, 서구의 학구적인 예술 교육의 권위를 비판하면서 평범한 이집트 국민들의 일상을 탐구했다. 이들의 관심사는 주로 당대 사회가 겪었던 빈곤과 억압이었다. '현대 미술 그룹'의 젊은 예술가들은 꿈에서나 목격했을 법한 비현실적인 풍경, 대중문화와 전통, 이집트 신화와 전설로부터 숭한 영감을 받았다. 이들의 작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물고기, 고양이, 새, 수탉, 농부와 거리 풍경 등은 이집트인의 집단적 무의식을 초현실주의적으로 탐구한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부 '이집트 초현실주의 그 후'는 1965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초현실주의 이후의 이집트 현대 미술을 보여준다. 아흐마드 무르시를 비롯한 무함마드 리야드 사이드, 아흐마드 무스타 등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며 1960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이집트 예술계 안 초현실주의의 흔적을 살핀다. 1960년대까지 민중미술에 더 가까워 보이던 이집트 초현실주의의 미술은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무함마드 리야드 사이드의 작품들은 마치 르네 마그리트를 연상하게 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며, 압둘하디 알자제르의 작품은 스토리텔링과 만화적 상상이 캔버스 안에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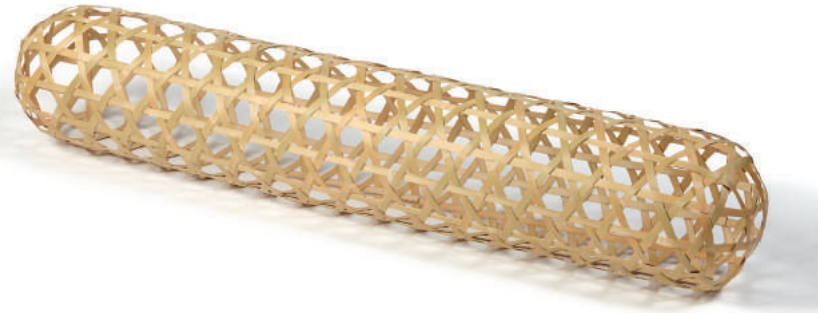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의 불가해한 상상력만을 떠올렸다면, 이 전시는 이집트 작가들이 가진 전복적 상상력과 표현을 확신하게 한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것을 초월한, 상상의 이미지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그들의 실험과 노력을 알고 나니 이집트 예술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전시는 7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다. S



## 바람 솔솔, 자연 소재와 여름 나기

무더위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함을 선사할 대나무, 왕골, 모시 소재 리빙 아이템. 집 안 온도를 낮춰 바람이 찾는 집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리아)



대자리 형식으로 둘러싸여 튼튼하고 부드러운 촉감에 통풍이 잘되는 구조의 족부인은 카다리 대나무.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컬러 감각이 느껴지는 오크 컬러의 테이블은 리스 커뮤니케이션.



왕골에 염색을 하여 한 올 한 올 엮어가며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은 꽃삼합은 강화도령 화문석.

조금만 움직여도 줄줄 땀이 흐르는 계절, 우리는 자꾸만 시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요, 옷과 신발 등 몸에 닿는 모든 것 그리고 집 안의 소품까지도요. 대나무, 왕골, 모시 소재 등으로 만들어진 리빙 아이템은 뜨거운 햇빛 아래 시원한 그늘처럼 더위를 식히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가구와 죽공예품은 대나무 특유의 고운 결의 반질거리는 감촉과 자연의 색감이 살아 있어, 대숲 사이사이로 불던 바람마저 감도는 듯합니다. 꼬임이 자연스러운 맛을 발하는 왕골 공예품은 여름철 기능성과 심미성을 두루 갖춘 아이템입니다. 화방석과 왕골 돗자리는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감촉으로 땀이 잘 거를을 주지 않습니다. 무늬가 아름다운 왕골 꽃삼합은 잡다한 것들을 예쁘게 정리해 담아둘 수 있지요. 까슬까슬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의 모시는 예로부터 여름철에 즐기던 원단이에요. 모시로 만든 베개나 쿠션은 습기를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을 나는 묘안이 되어주지요. 시원함을 간직한 자연 소재 아이템으로 한낮의 무더위와 한밤의 열대야를 이겨내면 어떨까요. S



한국 부채를 대표하는 전주 지방의 특산품 함죽산은 김동식 선자장 작품으로 by 해브빈서울.



대나무를 종잇장처럼 얇게 발라 쪽물로 천연 염색한 쪽물 수근 도시락은 서신정 무형문화재 채상장 보유자 작품으로 by 소생 공단.



컬러와 구상에 따라 드러나는 독특한 조형미가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 조각 잇기로 완성한 모시 소재 쿠션은 달빛단풍.



자연 염색한 모시와 실크사의 은은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도시의 모습을 재현한 모시 조각 발 '짓다'는 조하나 작가 작품.



스카이 블루 컬러가 청량감을 선사하는 천연 소재 키링. 복이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삭 스튜디오.



대나무를 꼬아 부드러운 곡선과 결을 만든 뱀비반침은 한상균 장인 작품으로 by 소생 공단.



섬세한 수작업이 돋보이는 화방석. 왕골을 꼬아 화려한 띠를 둘러 만든 원형 화방석은 강화도령 화문석.



예술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의 대나무 조명은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by KCDF 갤러리숍.



차고 시원한 성질로 무더운 여름철에 좋은 메밀 베개. 연한 블루 톤의 모시 소재에 지수를 넣은 베개는 모프.



## 우리가 사랑한 블루

바다와 하늘을 닮은 색,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컬러 블루. 은은하거나 때론 강렬한 블루 컬러 아이템으로 청량한 여름을 맞이해봅니다.

에디터 윤연숙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콜로디아)



블루 컬러의 열매 모양 펜던트가 앙증맞다. 브라스, 18K 금, 글라스가 결합된 트로피컬 펜던트 목걸이는 유주얼엔미.



종이를 말아 염색하여 레진으로 코팅한 그로잉 컬러 귀고리는 이영주 작가 작품으로 by KCDF갤러리숍.



백사장과 푸른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 휴양지의 해변을 그래픽으로 표현해 프린팅 했다. 멀티 컬러 맥북프로 파우치는 SKOG.

부드러운 스카이 블루부터 깊은 바닷속을 담은 딥 블루, 초록빛이 도는 터키 블루 등 다양한 색감의 블루 컬러는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선사해 계절감을 느끼기에 좋은 컬러입니다. 작은 주얼리나 시계 등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도심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청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밝은 톤의 블루는 경쾌한 느낌을 전달하며 어두운 톤의 블루는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주지요. 블루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줄 때에는 다른 아이템에는 강한 컬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품위 있고 우아한 인상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비드한 톤의 블루는 네이비 컬러와 가장 잘 어울리고, 밝은 그레이와도 좋은 컬러 궁합을 이룹니다. 컬러 매칭에 자신이 있다면 캐멀 컬러와 매칭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의 매칭은 청량감을 두 배로 전달하지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는 상큼하게, 습하고 답답한 날씨 속에서는 상쾌하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블루 컬러 아이템으로 센스 있는 여름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세요. S



로열블루 컬러가 시원함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착화감이 편한 메리제인 스트랩 샌들은 바이미나.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천연염색하여 자연스러운 컬러가 멋스럽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 필수품인 면 손수건은 해브빈서울.



고려 귀족들이 애호하던 순수 청자토로 제작된 비취청자 반지는 맘이크크래프트 by KCDF갤러리숍.



안경 케이스도 가벼움을 입다. 안감에 패딩 처리해 안경을 보호하는 블루 올리브 자수 패턴 안경 케이스는 SKOG.



여의주문 접기를 응용하여 쪽염색한 옥사 소재의 전통 주름 브로치는 조하나 작가 작품으로 by 해브빈 서울.



스판 원단을 혼용하여 움직임이 편하게 만든 주머니가 독특한 바지는 Orumm.



포르투갈에서 만든 블루 타탄체크 양면 토트백은 La Cocotte by 스마일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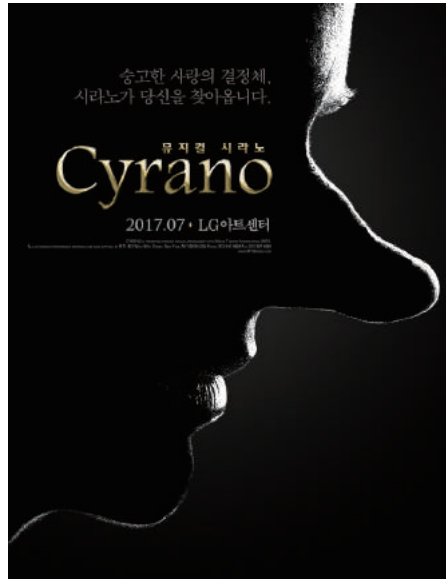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블루 자개 선글라스는 센셀렉트.



교체 가능한 밴드로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는 리치콘브로크.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시라노〉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순수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시라노〉

뮤지컬 〈시라노〉가 국내 초연된다. 특히 배우 류정환이 주인공 시라노이자 프로듀서로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아름다운 이야기와 완성도를 책임질 화려한 창작진, 스타 뮤지컬 배우들이 감동의 무대로 초대한다.

뮤지컬 〈시라노〉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소재가 된 프랑스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희곡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Cyrano de Bergerac)〉가 원작이다. 17세기 중엽 파리를 배경으로 크고 못생긴 코를 가졌지만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시라노의 애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그렸다. 〈시라노〉는 2009년 일본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지킬앤하이드〉로 국내 마니아 층을 확보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레슬리 브리커스 콤비의 작품이다. 뮤지컬 배우 류정환이 프로듀서로 데뷔하는 첫 작품으로, 한국 초연의 연출은 창작 뮤지컬 〈파리의 연인〉, 〈살짜기 읊서예〉의 구스타보 자작이 맡았다. 주인공 '시라노' 역에는 류정환을 비롯해 홍광호와 김동원이 캐스팅됐다. 시라노와 크리스티앙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아름답고 순수한 '룩산' 역에는 최현주와 민아가 더블 캐스팅됐다. 룩산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크리스티앙 역에는 임병근과 서경수가 캐스팅되어 멋진 무대를 펼친다.

일시 7월 7일~10월 8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1588-5212



국립현대무용단 신규 창작  
〈제전악祭典樂 - 장미의 잔상〉

국악 라이브 연주와 한국 무용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몸짓의 향연이 펼쳐진다. 진짜 한국 춤, 여러 보이지만 강인함이 서려 있는 한국적인 미를 오롯이 담아낸 춤사위가 우리를 사뭇사뭇 이끈다.

〈제전악-장미의 잔상〉은 신예 라예송이 작곡한 전통 악기 구성의 미니멀한 춤곡과 안성수 안무가 특유의 섬세하고 직관적인 안무를 통해 제전祭典의 현대적 의미를 풀어낸다. 음악은 국악기 전통 음계를 사용해 악기의 색을 풍부하게 빚어내고, 안무는 극단적 대비를 통해 아름다움의 극대화를 이룬다. 땅에 대한 예찬, 태고의 사람들과 자연의 만남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는 먼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춤은 동서양의 경계를 없애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미지들로 콜라주된다. 전사들이 땅을 수호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기 전 펼쳤던 의식 행위에서 모티브를 얻은 '전사들의 춤'을 비롯하여 전통 무용 '오고무'에서 추출된 강렬하며 세밀한 소리와 움직임은 남녀 무용수들의 역동성과 대조를 이루며 음양의 조화를 보여준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국립현대무용단 무용수 전원이 출연하며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타악 등의 라이브 연주도 공연된다.

일시 7월 28~30일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문의 02-3472-1420

뮤지컬 〈아리랑〉



조장래 대하소설 〈아리랑〉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 일제강점기 억척같은 민초의 삶을 그려냈다. 2015년 초연 이후 두 번째 공연으로 주연부터 조연과 앙상블까지 37명의 초연 배우들이 다시 재공연에 합류해 한층 깊어진 아리랑의 정서를 관객에게 선물한다. 일시 7월 25일~9월 3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77-1987

연극 〈3일간의 비〉



1995년과 1960년대 서로 다른 두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을 통해 과거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작품으로, 배우 오만석이 연출을 맡았다.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인물 간의 섬세한 감정을 풀어내는 서정적인 작품이다. 일시 9월 10일까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문의 02-764-8760

콘서트 〈2017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트 페스티벌〉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앤드아트 페스티벌 〈지산 밸리록〉. 자연 속에서 다양한 관객들이 예술과 문화로 소통하고 감성과 창의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축제의 장. 록, 재즈, 힙합, 일렉트로닉까지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천후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일시 7월 28~30일 장소 지산리조트 문의 02-446-2690

책 〈이동진 독서법〉



장서기이자 책 읽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설파하는 못 말리는 애서가 이동진의 독서법을 담은 책. 작가가 책을 읽는 법과 책을 사랑하는 방법, 〈씨네21〉이 다해 기자와의 대화, 작가가 일평생 읽어온 책들 중에서 권하고 싶은 500권의 추천 도서 리스트가 담겨 있다. 지은이 이동진 출판사 예담

전시 〈너의 이름은. 展〉



올해 초 개봉해 관객 365만 명을 동원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전시회 〈너의 이름은. 展〉으로 돌아온다. 콘티, 스케치, 컬러 도감 등 300여 점에 달하는 원화가 공개되며,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어보는 체험 공간, 비하인드 영상도 만날 수 있다. 일시 7월 8일~8월 13일 장소 모나코 스페이스 문의 02-541-2929

전시 〈모리스 드 블라맹크 展〉



마티스와 함께 아수파의 주축으로 평가받는 블라맹크, 블라맹크의 생애를 따라 '세잔의 시가-파리 근교', '제1차 세계대전 이후-발 두아즈 그리고 파리 근교', '샤르트르 근교, 노르망디, 브르타뉴', '블라맹크의 유작'의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일시 8월 20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580-1300



#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 클렌징 라인

**공중비누**  
홍삼자색의 항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피부 걸 장리 에센스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충실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걸 장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사버린 성분의 효능은 울리고 피부를 감싸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노보크림 (TF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탄력넥크림**  
자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인티에이징 넥크림  
60ml | 80,000원대

##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상 피우다가 포함된 젤 포물러가 얇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팅 스크럽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마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젤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 주는 브라이팅 스킨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방 환경까지 케어하는 극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클림 자막 어플리케이터와 시원한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깊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자정미백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삼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인티클루션 미백 스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꿔주는 초기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가꾸어주는 인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자음생진분유**  
인삼 종자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도려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신트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수올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올수 (Laminol)**  
청량한 수분감으로 피부 내내 촉촉하게 적셔 산뜻하고 상쾌한 피부로 정돈해주는 워터 타입 스킨  
125ml | 52,000원대

**수올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올선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 선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씨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 진설 라인

**진설수**  
적송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령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달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송 성분과 글루타미네이커 마시자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달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달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령력으로 한결 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달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진설클렌징폼**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계층력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20ml | 65,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심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력사리 토달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설인팩**  
목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어유포**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옥용팩**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트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자진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 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리프래시클렌징폼**  
찬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대일리 스크럽 경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가보습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 8일 출시  
15g x 2 | 60,000원대 (리필 15g 30,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팅 (SPF 50+ / PA+++)**  
묵연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팅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젊고 건강한 동안 빛을 되찾아주는 인텐스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멀티 쿠션 하이리터**  
피부에 생기 볼륨을 선사하는 펄 베이스 겸 하이리터  
8g | 40,000원대

**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설텡 되어 몽글 몽글한 듯한 신뜻함을 유지시켜주는 메이크업밸런서  
8g | 65,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1호 화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3호 라이트 그린  
35ml | 60,000원대

**CC**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35ml | 60,000원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스킨커버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꿔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윤에이징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팩트 파운데이션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모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장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10g | 60,000원대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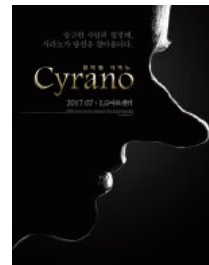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설화수 설안팩(5명)

깊고 맑은 옥의 기운으로 밤사이 피부를 정화시켜주는 수면팩입니다. 설화수의 제이드스피어™ 기술이 옥이 가진 효능을 피부에 전달해 맑고 윤곽한 피부를 선사합니다.



### 뮤지컬 <시라노>(3명)

주인공 시라노의 애뜻하고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시라노>의 관람권을 3명\*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7년 8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설안팩, <시라노> 관람권
- 당첨자 발표 9/10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 2017년 5/6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 설화수 윤조애센스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3명)

- 강미연 부산시 북구 화명동
- 김은정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심미양 경남 김해시 능동로

#### 무용극 <런, 다시 피는 꽃>(3명)

- 김명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이혜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 허유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17년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 잠든 사이 신비로운 옥의 힘으로 깨어나는 맑고 청아한 아침 빛 피부

### 설화수 설안팩

밤 사이, 피부 정화의 시간을 통해 맑은 피부는 깨어납니다  
 잠든 시간 동안 청아한 아침 빛 피부를 전하는 설화수 설안팩  
 수 천 년 응축된 땅의 힘이 빚어낸 옥의 신비로운 정화에너지로 담아 밤 사이 맑고 청아해진 피부를 선사합니다  
 설화수 설안팩으로 매끄럽고 맑은 아침 빛 피부를 만나보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6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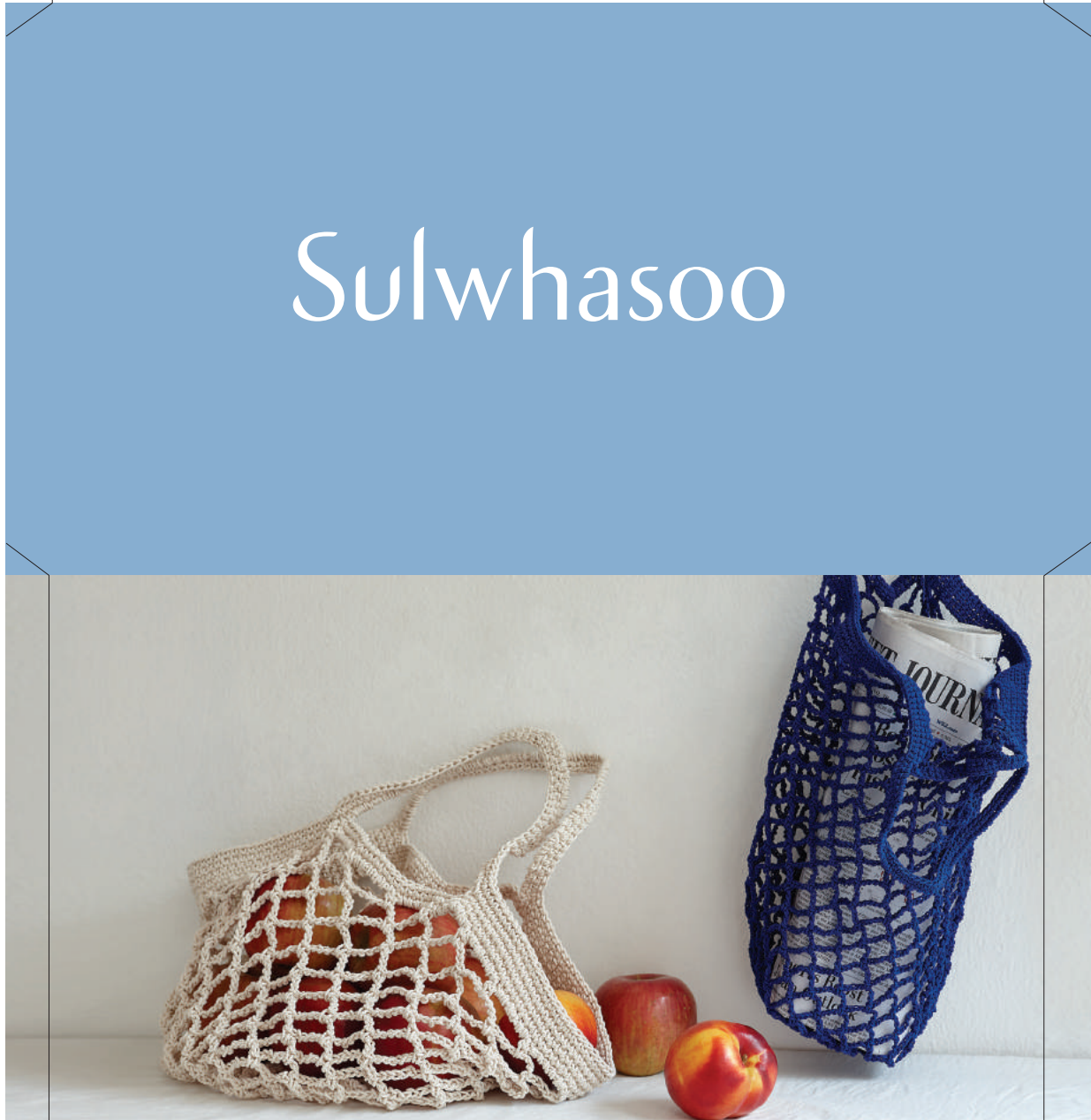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1. 펼치다

- 설화지혜(8p)
- 피부 섬기기(12p)
- 新 장인을 만나다(16p)
- 공간미감(22p)
- 건너다(28p)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2. 누리다

- 설화인(36p)
- 어우러지다(44p)
- 설화풍경(50p)
- 설화보감(54p)
- 아름다운 기행(60p)
- 설화수를 말하다(66p)
- 설화공간(72p)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3. 익히다

- 배움의 기쁨(78p)
- 한국의 멋(82p)
- 설화애장(84p)
- 읽다(86p)
- 집 안 단장(90p)
- 몸 단장(92p)

매우만족							매우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설안팍       뮤지컬 <시라노> 관람권
-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7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